



불교총지종

총지종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통해 참 대승의 정신을
구현하는 생활불교 종단입니다.

총지종 보

2009년 2월 2일(월)

음력 1월 8일

월간 발행

www.chongji.or.kr

창간년도 총기24(1995)년 10월 16일 등록번호 마 2360호 발행인 : 서진업(원송)

The chongji news

구독문의 02-552-1080 불기 2553년 제111호

원정(宛淨) 종조 탄신 102주년 기념법회 봉행

“유훈 받들어 현세정화, 불퇴전 정진”



▲ 1월 29일 서울 총지사에서 봉행된 원정 종조 탄신 기념법회

불교총지종은 1월 29일 서울 정종조 탄신 102주년 기념법회를
총지사 및 전국 각 사원에서 원봉행했다.

오후 2시 총지사에서 열린 기
념법회에는 서울 경인교구 사원

스승과 신정회 임원진, 교도 등
이 두루 참석했다. 이날 법회는
재무부장 시정 정사의 집공과
사무국장 법일 정사의 사회로
개식사, 훈향정공, 고유문 낭독,
유가삼밀, 탄신 및 행장소개, 봉
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효강 종령 예하는 고유문에서
“법신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선시(宣示)하신 대성사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린다”며 “보은
의 마음으로 창종정신을 기린다”
고 말했다.

종령 예하는 또 “우리 종단은
그 뛰어난 종자와 숭고한 창종
이념에도 불구하고 시대에 부응
하는 새로운 교회방법을 개발하지
못하고 안일하게 대처한 점이
없지 않았다”고 전제하고 “종
조탄신일을 맞이하여 종조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고 시대
에 맞는 교회방법을 개발하여
이 땅에 다시 한번 밀교중흥의
기치를 드높여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원송 통리원장은 화령 중앙교
육원장이 대독한 봉행사를 통해
“탄신기념법회를 맞이한 오늘

원정 대성사님의 밀업국토 건설
과 밀교중흥의 대원을 되새긴다”며 “종조님께서 재창하신 재
생의세의 정신으로 세계속에 우
뚝 선 종지종을 만들기 위해 용
맹정진할 것을 다짐한다”고 말
했습니다.

신정회 김인숙 서울경인지회
회장은 발원문에서 “대성사님
탄신 102주년을 맞아 큰스승으
로서의 그 업적이 더욱 거룩하
여 진다”며 “우리들에게 정진
력과 자비지혜 구족케 하고 퇴
전함이 없게 해달라”고 기원했다.

한편 총지종은 지난 2007년 종
조탄신 100주년을 전후해 추진된
원정 종조 육필원고 발간을 비
롯한 각종 기념사업을 지속적으
로 실행할 계획이다.

또 향후 종조탄신 기념사업은
종조 관련 학술세미나 등 원정
성사의 생애와 활동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할 예정이다.

종단은 다양한 종조 탄신관련
사업을 통해 포교활성화를 기하
고 역량을 강화하여 종단중흥의
계기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1월 15일 서울 총지사에서 정각사 법공 정사와 공덕성 전수, 국
광사 우승 정사와 묘설계 전수의 스승 퇴임식과 은가사 수여식이
봉행됐다.

법공 정사는 퇴임사에서 “종단의 은공을 다 깊지 못하고 떠나
게 돼 송구스럽다”며 “퇴임이후에도 종단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언제든지 불벗고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수처작주(隨處作主)하는 한 해 되길”

전국 스승 동참, 신년하례법회 봉행



▲ 1월 15일 원정기념관에서 열린 기축년 신년하례법회. 전국 각 사원 스승들이 동참하였다.

불교총지종은 1월 15일 서울
총지사에서 효강 종령예하를
비롯해 전국의 스승과 교도들
이 참석한 가운데 기축년 신년
하례법회와 스승 퇴임식을 봉
행했다.

총무부장 경원 정사의 집공
으로 열린 이날 법회는 원정기
념관 하례와 종령 및 승단 하례,
교도일동 하례, 종령 신년
법어, 스승 퇴임식 순으로 진행

2면 기획 원정 대종사의 가르침 ⑧

10면 새해불공 동참기(총지사/이정화)

12면 진언행자를 찾아(성화사/오순자)

되었다.

효강 종령예하는 “법어를 통해
‘언제 어디서건 주인이 되리는
수처작주(隨處作主)’를 말하겠
다”며 “이르는 뜻마다 참 주인이
되고, 우리가 서있는 곳 모두가
참 진리라는 수처작주의 삶을
사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당
부했다.

종령예하는 이와 함께 “지난
삶을 돌아보며 교회에 최선을
다했는지, 법력을 기르기 위해
용맹정진해왔는지, 맑은 삶을
위해 계를 잘 헤지 했는지 등을
살펴서 잘못이 있으면 참회
하고 분발해서 종단중흥과 교
회활성화에 이바지하자”고 말
했다.

새해 정진불공 원만 회향

철야 용맹정진 불공도

불교총지종은 지난 1월 5일부
터 11일까지 7일간 서울 총지사
를 비롯한 전국 각사원에서 기
축년 재난소멸과 소원성취발원
새해 정진불공을 봉행했다.

회향일인 1월 11일 자성법회일
밤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7시간
철야용맹정진기도불공도 열렸다.

전국 각 사원의 스승과 교도들
은 이번 기축년 새해 발원과 정
진수행을 통해 서로 격려하는
화합의 장을 만들었다. 일부 사
원에서는 새해정진불공 후 주변
불우이웃들을 방문, 위로행사를
갖기도 했다.

서울 총지사는 새해불공 회향
행사로 지난 1일 제부도에서 방
생법회를 개최했다.

새해 불공에 동참한 교도들은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자비
광명속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길 서원한다”고 말했
다.

새해불공은 총지종의 특별한
불공정진 행사를 보통 정월 첫
째 월요일에 시작하여 일요일에
마치며 이 기간에는 다른 때의
불공과는 달리 일체 업무를 중
단하고 불공에만 전념한다.

종조법설

희사(喜捨)는 복(福)의 문을 여는 일

물질시대의 재물은 희사(喜捨)로써 복되게 나가는 것과 고통으
로 나가는 두 문이 있으므로 복의 문을 힘써 여는데 재화(災禍)
로 나가는 문이 달려진다. 만약 부정하게 들어온 재물에 희사문
(喜捨門)을 열지 않으면 그 재화는 한량이 없느니라.

상반기 49일 불공

모든 중생은 불성을 지닌 부처님이십니다.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허물을 찾아 참회하고, 조상으로부터 쌓아 온 업장을 소멸하는 지극한 불공을 해야 합니다. 모든 불자님들께서는 전생의 업장을 소멸하여 해탈을 이루시고, 항상 마음자리를 살펴 청정한 부처님이 되도록 수행정진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반기 49일 불공정진으로 모든 마장을 예방하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 일 시 : 총기 38년 2월 19일 ~ 4월 8일

◆ 대 상 : 총지종 교도 및 모든 불자

◆ 장 소 : 총지종 전 사원

불교총지종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 02)552-1080~3 전송 02)552-1082 // www.chongji.or.kr

사설

포교는 봉사에 기반한다

얼마전 우리 사회에 훌륭한 바람을 일으킨 작은 사건 하나가 있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전해진 기사라 그 감동은 더 커졌다. 서울대가 '따뜻한 약속'을 지켰다는 기사였다. "서울대가 재학생 3분의 1이 불우청소년과 결연하여 돌봐주기로 한 것"이다. 실천에 옮기기 쉽지 않은 결정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서울대의 자선활동은 '동반자 사회 운동'이라고 불려진다. 한국 사회가 회생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하는 '동반자 사회(social companion) 운동'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새싹 멘토링'이라 하여 교내·외 장학금을 받는 서울대생 1년여명이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중·고교생들과 결연을 맺고 매주 1회 돌봐주는 멘토(mentor 조언자)가 된다는 것이다. 또 퇴직자를 연구원으로 초빙하고, 실업자의 재취업 교육 실시, 졸업생 인턴제를 실시하여 깊은 인력을 연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사회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소외되고 가난한 가정의 학생들을 위해 서울대생이 적극 나서겠다는 선언이다. 우리 사회에 전하는 '사랑의 메시지'이다. 이 따뜻한 온정은 기부에서도 나타난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이 자선 목적으로 기부한 돈은 1인당 연평균 19만700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2005년 16만1000원에 비해 3만6000원(22.3%)이 늘어난 것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난해 말 전국 성인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부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54%로 종교 헌금이나 정치후원금을 빼면 자선 목적인 연평균 기부액은 19만700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부는 40대(61.5%), 자영업(68.9%), 401만 원 이상 소득자(72.8%)에서 많았고, 기부 동기에 대해서는 '어려운 사람을 돋고 싶어서'(49.5%) '더불어 사는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32.9%) '스스로 보람된 일을 하고 싶어서'(10.8%) 순으로 나타났다. 어려울 수록 남을 돋는 우리 민족의 정서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자선활동은 다양한 방법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이룩하는 사회 곳곳에 펼치고 있다. 5년째 독거노인들의 집을 수리해주고 있는 부산 동의대 학생들의 선행은 진정 이웃을 위한 길이 무엇인가를 느끼게 한다. 의지할 곳 없이 혼자 사는 노인들의 집을 부산 동의대 건축설비공학과 학생 20여명이 정과 망치, 흙손, 삽 등 장비를 손수 들고 집을 고쳐왔다. 학생들은 집 밖에 위치한 화장실을 실내로 옮겨 설치하고, 연탄보일러를 기름보일러로 교체하는 작업을 했다. 실내에 옥실을 추가로 만들고, 흙은 거실 옆에 붙은 부엌과 인방 등에 온수배관을 설치하는 등 난방과 단열, 지붕 보강 등 주택 전체를 리모델링해 편안하고 쾌적한 보금자리로 만드는 공사 등을 해왔다.

일반사회에서 펼쳐지고 있는 다양한 자선활동을 보면서 종교계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사명감이 밀려온다. IMF 때보다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경제상황에서 종교계의 대사회활동은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어야 할 것은 물론이고 고통을 함께 나누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종교가 단순히 신앙생활만을 의미하지 않음은 상식이 되었다. 오늘날의 종교는 절대적인 봉사와 양질의 서비스를 요구받고 있다. 종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구축이 필요하다. 포교는 봉사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알림방 ▶ 2일부터 8일까지 월초불공을 봉행합니다.
▶ 19일은 상반기 49일정진 입제일입니다.

▶ 정각사 바리밀지역아동센터 소식지를 무료배포합니다. happylog.naver.com/baramil.do에서 신청하세요.

기획연재 教史를 통해 본 宗祖 菩淨 大宗師의 가르침 ⑧ / 밀교연구소 · 종학연구실 공동

"실천수행법으로써 사종법을 시행하다"

총지종은 준제관음법에 기반을 두었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준제진언이 아니었으면 총지종은 없었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준제진언은 관세음보살의 육자진언과 함께 총지종의 중심 교리이다. 주요 의례법이다. 그런 유유로 청종에 앞서 준제관음상을 먼저 조성하기도 하셨다. 준제진언에 대한 교상판석은 여기에만 머문 것이 아니었다. 준제진언을 설하고 있는 『준제다라니경』류의 경전과 의례서가 종단의 주요 경전인 『밀교성전』의 주류를 이루었다는 점은 준제진언이 곧 총지종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다. 원정 대성사에서 육자진언과 함께 준제진언을 종단의 중심의례로 삼은 근거는 『대승장엄보왕경』에 있었고, 그 구체적인 수행법은 『준제다라니경』과 『현밀원통성불심요집』을 토대로 마련하였다. 그 수행실천법이 준제진언을 중심으로 한 '사종법(四種法)'이었다. 사종법은 밀교의 호마법을 말하는 것으로 식재(息災), 증익(增益), 경애(敬愛), 항복법(降伏法)을 가리키고 경전과 밀교 의식작법에 따라 이들 사종법의 진언은 다양하다. 종조께서는 호마법의 사종진언 가운데 『현밀원통성불심요집』의 사종법을 선택하였다. 『현밀원통성불심요집』의 사종진언을 택한 이유는 오늘날의 중생들의 욕구에 가장 적합한 기도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난을 없애고 소원을 성취하고자 하는 것보다 중생들에게 더 귀중하고 소중한 소원이 또 어디 있겠는가. 종조께서 총지종의 청종을 구국도생(救國度生)의 대비원력(大悲願力)에 두었던 만큼 여기에 부합하는 기도법이 사종법이라고 확신하였다. 준제진언의 사종법에 중생의 모든 소원이 망라되어있다. 재난을 없애기를 서원할 때는 '제재난 사바하'를, 구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 서원할 때 '소구여의 사바하'를, 화합과 원만을 서원할 때는 '영일체인경애사바하'의 준제진언을 지송하도록 하였다.

이 사종법은 밀교의 네 가지 호마법을 말하는 것이다. 원래 호마법은 인도의 바라문교에서 비롯되었는데, 바라문교의 화신(火神)인 아그니(Agni)를 공양하여 마(魔)를 제거하고 복을 구하기 위해 행해진 화제(火祭)를 불교에서 도입한 것이다. 불교에서는 이를 법제(法儀)로 일컬어 5종의 법(法)을 채택하고 있다. 출세간법은 아예 처음부터 채택을 하지 않았고, 항복법은 시행 자체를 유보하였기 때문이다. 출세간법은 심신유곡이나 수련한 동굴에서 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도심포교(都心布教), 시종포교(市中布教)를 표방한 종단의 지표와는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항복법은 근기가 낮은 이가 함부로 행해서는 안될 기도법이기 때문에 유보를 결정한 것이다.

풍경소리

개으름의 허물



게으른
사람은
춥다고
일하지 않
으며
덥다고
일하지 않
으며
배가 고



파도 일하지 않으며
새벽이라고 일하지 않으며
저녁이라고 일하지 않는다.
이런 탓으로 그는 사업을 해도 성공하지 못
하고
사치와 낭비로 재산을 탕진하고 만다.

- 선생지경(善生子經)

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제가 가진 것은 이 실타래 밖에 없습니다.
비록 하찮은 것이지만 받아 주십시오.”

실타래를 받아 드신 부처님은 환하게 웃으며
입고 있는 가사를 벗어 들고는
실타래의 실로 헤진 곳을 훠매기 시작하셨습니다.

보시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베풀고 받으며,
베풀었다는 마음도 받았다는 마음도 없을 때
진정한 보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배관성(풍경소리 후원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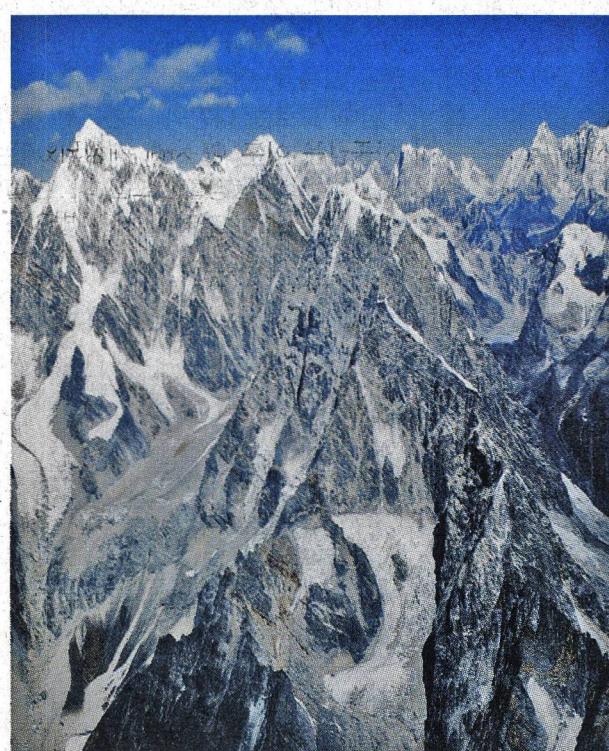
분별



물감을
허공에 칠
한들 허공
이 물들 것
이며
칼로 물
을 끊은들
물이 끊어

이달의 명상

어디서나 주인이 되라



히말라야 설경

如大器者(여대기자)
直要不受人惑(직요불수인
혹)이라
隨處作主(수처작주)하야
立處皆眞(입처개진)이니라

큰 그릇이라면 다른 사람의
유혹을 받지 않고
어딜가나 주인이 되어야 선
자리 그대로가 참다운 삶이
된다.

- 중국 당나라 임제선사(臨濟義玄:
미상~867)

원정대성사와 함께 하는

VISUAL필고

~전수경판 제36화~

글.그림/정수일



정수일홈피-> <http://www.drawing라홀라.kr>

웰빙시대 우리집 건강지킴이 신비의 황토손

선조들의 생활속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신비의 흙이 바로 황토입니다.

땅의 약 10%를 덮고 있는 황토는
다량의 탄산칼슘을 가지고 있다.
이성분은 황토를 잘 부서지지 않게 하는 점력을 가지며
이외에도 실리카 알루미나, 마그네슘, 철분, 나트륨,
칼리 등의 구성성분을 갖는데
이러한 성분과 다양한 효소들로 조성된 황토는
동식물의 성장에 필수적인 원적외선을 다양 방출하므로
살아 있는 생명체라 부른다.



▶황토이야기

황토의 가장 근본적인 효능은 황토에서 방출되는 원적외선이다. 황토에 열을 가하면 흙
에서 내뿜는 복사열인 바이오 원적외선이 인체에 깊숙이 침투하여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되는 세균 작용을 악화시키고 혈액순환을 돋구거나 세포생성을 촉진시킨다.
특히 황토는 중금속을 분리시키며 습도를 조절하고 전자파를 차단하며 항균, 방충, 생리
활성, 제독력 등의 효능이 있어 노화방지나 건강에 효과가 있다.
황토를 축조된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부엌일을 하던 우리 옛어인들에게 유방암, 자궁암
등이 없었던 것은 바로 이 황토에서 방출되는 원적외선이 부인병을 예방하는 효능 때문
이었으며, 이는 옛문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본초강목과 향약집성방

중국과 우리나라의 한방 의학서인 본초강목과 향약집성방에는 복용간(황토)에 대해서 종
요시하고 있다.
복용간은 아궁이 속의 흙을 말하며 이는 부인의 어지러움이나 토혈, 중풍등의 치료제로
쓰였다고 기록되어 있고 산해경에도 황토는 대체로 질병치료에 효험을 보는 것으로 묘사
되어 있다.



- ① 손의 혈액순환을 위해 황토손위에 올려놓은 모습
- ② 변비가 심하신 분은 등근면을 배 안쪽으로 해서 데워주는 모습
- ③ 무좀, 발의 피로를 풀기 위한 모습
- ④ 의사에 걸터 앉거나 가볍게 올려 놓는다.
- ⑤ 옆구리 결림 등에 등근면을 사용하는 모습
- ⑥ 무릎 등의 관절 부위에 사용한 모습
- ⑦ 머리가 무겁거나 뒷 목줄기가 당길 때 사용한 모습
- ⑧ 어깨가 결리거나 무리한 운동을 하였을 때 사용모습
- ⑨ 허리가 결리거나 당길 때 사용모습(영치통 등)

문의

대구 달성군 가창면 정대리 612

김미성 보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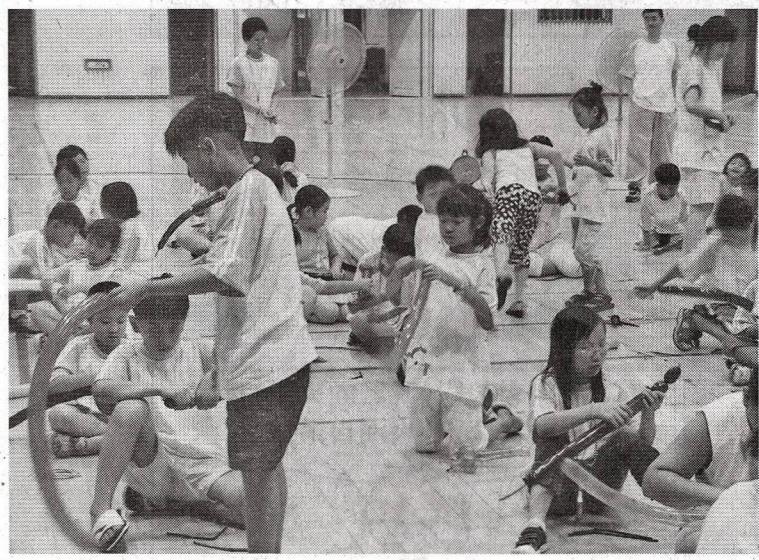
☎ 011-514-1094, 053)765-9588

대구 개천사 : 대구 중구 봉산동 230-12

☎ 053-425-7910

만다리의 복지세상 ⑤

어린이·청소년 포교 활성화의 과제



▲청소년 수련회 모임 활동

있다. 흔히들 어린이 법회 운영의 문제점은 종단의 관심과 지원 부족에, 청소년 포교의 문제점은 국내의 독특한 임시전쟁으로 인한 시간 부족 등을 꼽는다. 어린이·청소년 포교에 대한 사찰이나 지도자들의 '열정'만 확실하다면 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각 사찰 주지스님들의 열정과 지원, 원력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지도교사를 발굴하여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포교의 국대화를 이루할 수 있다.

이웃종교인

개신교만 보더라도 1달에 1~2회는 pc방에 가서 선교활동을 하는 등 어린이·청소년들의 관심사를 읽어내고 그 문화를 이해하는 것에서 선교의 방안을 찾고 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열정'에서 파생되는 산물이다.

3. 어린이·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포교방법

어린이·청소년 포교는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포교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한 사찰의 경우 어린이 법회를 pc방 수업뿐만 아니라 침실방 수업까지 병행하고 있다. 법당에서만 교육해야 한다는 편견을 버려야 한다. 다양한 욕구에 부흥하는 다양화된 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포교 방법으로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용해야 한다. 학업에 지친 학생들을 위해 법회를 주 4회에서 2회로, 법회를 고집하는 것보다 빨 속에 들어가는 것에 거부반응을 보이는 청소년들에게 춤, 노래, 영화 등 주제별, 테마별로 문화포교, 창작교육과 영어법회, 상담역할 등 실질적인 포교 방법이 모색돼야 한다.

또한 정보화시대의 도래로 인해 e-메일 활용, 핸드폰 문자,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편리하고, 친근감 있게 접근함으로써 이들이 불교에 관심을 가지게 해야 한다.

어린이·청소년들에게 불교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제공하는 것이 불교문화를 알리는 것이며, 불교의 포교이다. 불교문화를 알리는 것은 포교의 저변을 넓히는 일이다. 법회를 보지 않더라도 법당에 들어와 법회를 참관하는 것만도 엄청



▲사찰순례·부석사



▲청소년 수련회 갯벌체험

난 포교이다. 사찰이란 공간을 이들에게 자유롭게 개방해 시설이 안 따라오면 안 따라오는 대로 불교문화를 접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또한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등의 활동을 이어주는 연계작업과 학업생활을 연결해주는 장치를 마련하고, 종단과 사찰, 그리고 지도자들이 상호 협조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어린이·청소년 포교는 미래 불교의 희망이고, 등대이다. 개방화, 국제화되는 사회에 요구되는 적합한 불교인재를 양성하고, 불교민의 미래가 아니라 국가와 세계의 미래상을 제시, 이끌어 나갈 불자를 양성해야 한다.

-지정(총지종 사회복지재단 사무국장)

1. 어린이·청소년 포교, 그 현실과 문제점

사찰별 재량에 따라 다르지만 조계사·봉은사와 같이 내로라하는 대형사찰의 경우도 법회참석학생들이 30~40명 내외이다. 10년전만 해도 100명이 넘던 어린이·청소년 법회 참석학생 수가 현재는 절반가량인 50명도 채 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

특히 어린이포교를 하는 사찰 수는 현저하게 줄고 있다. 이는 지도교사와 프로그램의 부족뿐만 아니라 정보화 등 빠른 사회현상에 불교계가 적응하지 못하는 데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지도자들을 양성할 교육기관과 교육 프로그램, 사찰과 교사들 간의 정보공유와 활동을 장려할 네트워크 부재 등도 심각한 문제이다.

또한 어린이·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추지 않고 무조건 법회에 참석하는 것을 강조하는 데서 문제점이 초래될 수 있다. 어린이·청소년 포교는 이들의 눈높이에 적합한 프로그램의 부재, 흥미와 재미를 유발할 수 있는 어린이·청소년 법회, 단기적인 텁풀스테이나 여름 수련법회가 아닌 지속적인 프로그램의 부재 등을 들 수 있다.

2. 어린이·청소년 포교에 대한 열정

청소년 포교는 어린이 포교든 가장 큰 문제점은 종단의 지원이 아니라 각 사찰 스님들의 '열정'에

총지동의보감

수족냉증 제대로 알고 치료하자



조선화 원장

<여성 美 한의원>

종 있다.

사춘기, 출산 후 산모, 간기기 여성,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난소낭종, 자궁근증 등 자궁질환을 지닌 여성, 근육양이 적은 여성에게 주로 나타나며 배, 무릎, 팔꿈치에도 동반증상이 나타난다. 평소에 피로를 쉽게 느끼고, 입맛이 없으며, 소화불량을 호소하는 것도 이 증상의 특징이다.

수족냉증의 원인은 첫째, 기하·경락을 타고 흐르는 양기가 부족하여 혈액의 순환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둘째, 혈액·간의 기운이 손상을 받아서 혈액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셋째, 비장, 위장의 허약·혈액순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화기의 기능이 떨어져서 오는 경우 넷째, 체질적 요인·소음인인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정신적인 이유로 찾은 불안, 걱정, 심한 우울증도 수족냉증을 야기 시기는 것으로 보고 있다.

수족냉증의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아주 심각한 경우가 아니라면 생활습관, 식습관, 운동요법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평소에 신진 대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단백질의 섭취를 늘리고 비타민과 무기질의 보충도 빼먹지 말아야 한다. 차가운 음식, 음료는 가급적 피하고 따뜻한 차를 자주 마시면서 몸의 냉기를 조절하면 좋다. 가벼운 걷기운동, 손목치기, 조깅과 더불어 적절한 유, 무산소 운동은 혈액순환과 근육양을 늘리는 데 더 없이 좋은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체온상승 및 유지 효과가 큰 반신욕과 족욕도 증상완화에 많은 도움을 준다. 남이 모르는 나만의 고통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평소에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도 무한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보살펴야 하겠다.

죽비소리 낭의 잘못을 보지 말자

남이 행하고 행하지 아니하는가를 살피지 말자.

오직 자기를 돌아보아 법도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살펴보자.

항상 자기부터 점검하는 사람이 되자.

법도에 맞지 않는 길은 아예 가지를 말자.

잘못된 점이 있으면

변명하지 말고 즉각 시정하도록 하자.

<법구경 法句經>



여성 美 한의원

■ 여성병(부인과) 클리닉

- 월경병 : 월경불순, 생리통, 무월경, 월경곤란증, 간기기 장애, 과소·과다월경 등...
- 생식기병 : 자궁근증, 질염, 냉증, 대하증, 봉루증, 자궁선근증, 요실금...
- 임신병 : 불임, 임신오저(임덧), 임신중독증 등...

* 기능성성작업 요법(자경단, 요실단 등)으로 탁월한 치료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비만 클리닉

- 여성 : 자궁 다이어트
- 남성 : 복부 다이어트

■ 가족 클리닉 - 보양, 수험생 등

* 환자들의 요청으로 2003년부터 남편 및 자녀들을 위한 클리닉을 개설하였습니다.*

■ 진료시간

평일 : 오전 9시30분~오후 6시30분
주말 : 오전 9시30분~오후 4시

점심시간 : 오후 1시~오후 2시

생활액 분석기

자동혈액분석기

조음파

온열전기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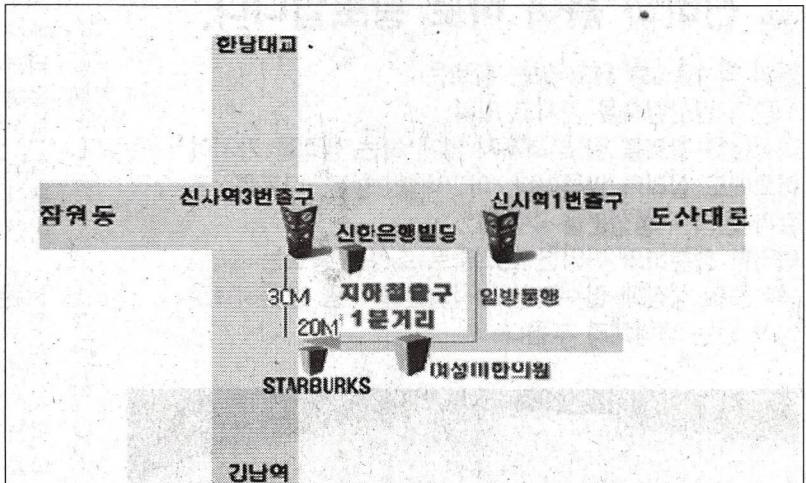
저주파치료기

자홍육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육아TV “전문의 상담”



지상설법



우인

(실보사 주교)

우리는 매일 유화선순(柔化善順)하는 마음을 길러서 진애심(眞惠心)과 원망심(怨望心)을 없애고자 서원하고 있습니다.

진애심과 원망심은 자기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바람이 있고 그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욕구불만이 생기게 됩니다. 욕구불만은 누구에게나 있게 마련인데 다만 그 욕구불만이 개인에 따라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필요가 발생을 낳는다', '독마는 사람이 우물을 판다', '억울하면 출세하라' 같은 말이 있듯이 뭔가 부족한 것을 메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다보

면 새로운 발명품을 만들 수도 있고 우물이라는 큰 소득을 올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타인에게 억울함을 당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하여 큰 인물로 성장했다면 이것은 나에게 부족한 욕구불만이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의 탓을 합니다. 자신의 허물을 보지 못하고 남의 허물만 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결과가 좋지 않은 쪽으로 나타나면 어떻게든 변명할 구실부터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남에 대한 원망이나 조건에 대한 불만입니다. 자기의 잘못은 어떻게든 감추고 숨기려 합니다. 이것이 도를 넘으면 자기 인생에 대한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궁극적으로 자기인생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져야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꾸만 남에게 떠넘기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본인에게 하등의 도움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악영향만 끼치게 됩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업경험이 없는 사람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여 6개월도 넘기기 전에 사업자금을 날리고 망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도와주지 않은 친척과 친구들 그리고 형제들을 탓합니다. 본인의 사업경험과 철저하지 못한 사업운영을 탓하지

않고 사업이 되지 않은 원인을 친구와 친척들에게 돌리고 가까운 가족들까지 원망합니다. 그래서 주변을 적으로 만들고 본인은 더욱 불행하게 됩니다. 사실 남을 원망한다는 것은 남에게 자기의 뜻난 점을 표출시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너 때문에 일이 이 모양이야', '너 때문에 내 인생을 망쳤어' 이런 말들은 남에게 빙축만 살 뿐 조금의 동정심도 유발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고 대책을 마련하면 일이

관계없이 오직 명상의 기쁨속에서만 살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한 친구가 책을 보내왔습니다. 너무나 고마운 선물에 기뻐하며 그는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책을 봤더니 쥐가 표지를 잡아 먹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는 쥐를 잡기 위해 고양이를 구했습니다. 그는 또 고양이에게 우유를 먹이기 위해 암소를 구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관한 그 수행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쥐가 잡아 먹지 않게끔 처음부터 잘 보관했다라면 나중에 그런 엄청난 일까지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며 쥐가 책표지를 잡아 먹은 다음에라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더욱 더 주의했다라면 될 일이었던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주고자 하는 마음보다 받고자 하는 마음이 강할 때 상대방에 대한 불만과 원망이 생깁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주고자 하는 마음이 강할 때 상대방에 대한 원망은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식하기보다 자꾸만 남의 잘못을 책망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사랑과 이해가 부족한 탓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소 자기에게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자기의 가슴속에 베풀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이 충만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채근단에서 "은혜는 잊지 말되 원망의 마음은 잊어라"하는 말이 있습니다. 남이 내게 베푼 은혜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하지만 원망하는 마음은 잊지 않으면 안됩니다.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결국에는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상대방이 나를 원망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됩니다. 남을 원망하는 마음을 돌려 부족한 자기 자신을 책망하고 뒤틀어 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은혜는 잊지 말고 원망심은 잊을 것”

수월하게 풀릴 것도 공연히 남의 탓만 하다가 일이 악화되어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원망은 남에게로 돌려 지지만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고 미는 부정적인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 미워하는 감정이 있는 이상 그것을 합리적으로 풀지 않으면 결국은 생활의 낙오자가 되고 세상이나 남들을 또다시 원망하게 되는 악순환을 거듭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깊은 산 속 바위 위가 그의 집이었습니다. 비바람도 깊주름도

그래서 그들을 둘 볼 수 있는 여자를 구했고 이번에는 그녀를 위해 집을 지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니 귀여운 아기가 생겨났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명상에 전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왜 이렇게 사건이 커졌는지 곰곰이 생각해 본 끝에 결국은 이 모든 일의 원인의 책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수행자는 분명 그 모든 사건의 원인이 책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 책을 보내 준 친구를 원망했을 것입니다. 사실 그건 옳은 판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건의 발단이 책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책을 잘못 보

◆ 모든 것은 자성이 없다

문수보살이 각수(覺首)보살에게 물었다.

"마음의 본성은 하나님인가 어째서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차별이 있습니까? 행복한 사람도 있고 불행한 사람도 있으며, 이복구비가 제대로 된 사람도 있고 불구사도 있으며, 잘생긴 사람도 있고, 못생긴 사람도 있으며,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즐거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살펴보면 업은 마음을 모르고 마음은 업을 모릅니다. 느낌은 그 결과를 모르고 그 결과는 느낌을 모릅니다. 마음은 느낌을 모르고 느낌은 마음을 모릅니다. 인연은 연을 모르고 연은 인을 알지 못합니다."

각수보살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보살은 잘 물으셨습니다. 나는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자성을 갖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해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무엇이건 서로 알지 못합니다. 이를테면 시냇물은 끊임없이 흐르지만 그 한 방울은 서로 모르는 것과 같습

니다. 또 타오르는 불길은 잠시도 멈추지 않지만 그 속에 있는 불꽃끼리는 서로 모르듯이 모든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 코, 혀, 몸과 생각이 고통을 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떤 고통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존재 그 자체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지만 나타난 쪽에서 보면 항상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나타난 것에도 자성은 없습니다. 바르게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 관찰하면 모든 것에는 자성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눈은 청정하고 불가사의합니다. 그러므로 허망하다거나 허망하지 않거나 진실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거짓 이름에 불과합니다." (화엄경 보살명난품 菩薩嚴經 菩薩明難品)

◆ 그대 어째서 아직도

많은 사람이 부처님 법 안에서 도를 이루었는데, 그대는 어째서 아직도 고해에서 헤매고 있는가. 그대는 시작없는 옛적부터 이 생에 이르도록 깨달음을 등지고 티끌에 묻혀 어리석은 생각에 빠져 있구나. 항상 악업을 지어 삼악도에 떨어지고 착한 일은 하지 않으니 생사의 바다에 빠진 것이 아닌가.

몸은 여섯 도록(*물질色), 소리(聲), 냄새(香), 맛(味), 촉감(觸), 의식(法의) 대상 즉 육경(六境)을 말한다. 중생의 수행을 방해하며 번뇌를 일으키므로 도적(비유)을 따라 악도(惡道)에 떨어진다. 고통이 극심하고, 마음은 일승법(一乘法) *부처님의 교법, 모든 중생이 다 부처가 된다고 하는 최고의 가르침)을 등지니 사람으로 태어나도 부처님 나시기 전이거나 그 후일 수밖

에 태어났더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 무엇이 이로우며, 밀세를 만났더라도 부처님의 교법을 받들어 행한다면 무엇을 걱정할 것인가.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의사와 같아 병에 따라 약을 주지만 먹고 안 먹는 것은 의사의 허물이 아니다. 듣고도 가지 않는 것은 길 잡이의 허물이 아니다. 자기를 이용해 하고 남도 이용해 하는 방법이 모두

그래서 철저하게 깨닫는 것으로 근본을 삼아야 한다. 자기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 하여 물러서서는 안 된다.

이 말세에 부처님이 떠나신 지가 오래 되니 마군은 강하고 불법은 약하며 옳지 않은 사람이 많아, 남을 이용해 하는 이는 적고 잘못 되게 하는 이가 많으며, 지혜로운 이는 드물고 어리석은 이가 많다. 스스로 도를 닦지 않으면서 남까지 시끄럽게 하니, 수행을 방해하는 일을 말로는 다할 수 없다.

〈아운 野雲 지경문 自警文〉

◆ 한 물건

여기 한 물건이 있는데, 본래부터 한 없이 밟고 신령하여 일찍이 나지도 않았고 죽지도 않았다. 이를 지을 길 없고 모양 그릴 수 없다.

한 물건이란 무엇인가. 옛 어른은 이렇게 노래했다.

옛 부처 나기 전에 의젓한 둥그러미 석가도 알지 못한다 했는데

어찌 가섭이 전하랴.

이것이 한 물건의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으며, 이를 지을 길도 모양 그릴 수도 없는 연유다. 육조(六祖) 스님이 대중에게 물었다. "내게 한 물건이 있

는데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다. 너희들은 알겠느냐?" 신회(神會) 선사가 곧 대답하기를 "모든 부처님의 근본이요 신회의 불성입니다." 하였으니, 이것이 육조의 서자(庶子)가 된 연유다. 회양(懷讓) 선사가 송산(崇山)으로부터 와서 범자 육조스님이 물기를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할 때에 회양은 어쩔 줄 모르고 짤짤매다가 팔년만에 깨지고 나서 말하기를 "가령 한 물건이라 하여도 맞지 않습니다." 하였으니, 이것이 육조의 맏아들이 된 연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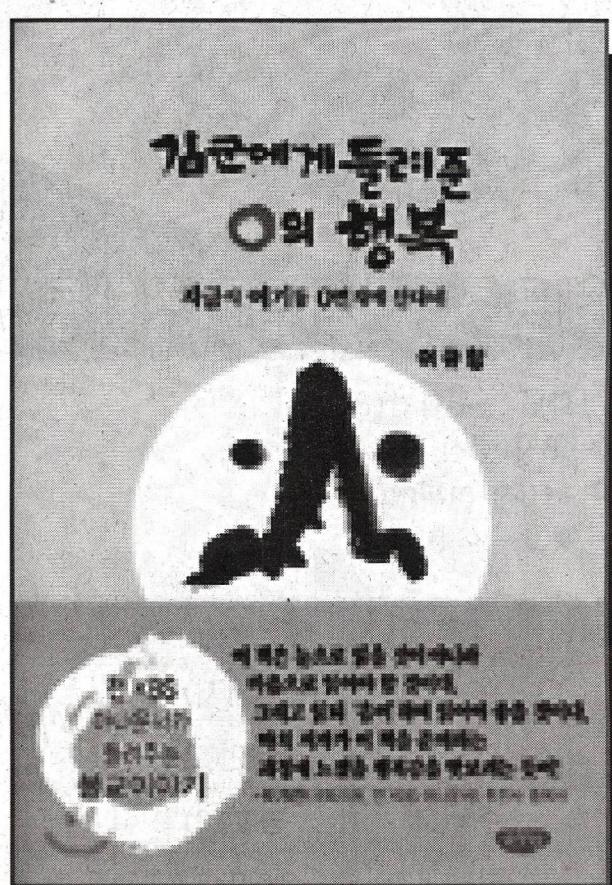
부처님과 조사가 세상에 출현하심은 마치 바람도 없는데 물결을 일으킨 견이다. 세상에 출현한다는 것은 대비심으로 근본을 삼아 중생을 건지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한 물건으로써 따진다면, 사람마다 본래 면목이 저절로 갖추어졌는데 어찌 남이 얻지 찍고 본 빌라 주기를 기다릴 것인가. 그러므로 부처님이 중생을 건진다는 것도 공연한 것인 것이다. 억지로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 마음이라 부처라 혹은 중생이라 하지만, 이름에 얹어야 분별을 넣어야 한다. 다 그대로 옳은 것이다. 한 생각이라도 움직이면 곧 어긋난다.

〈서산 西山 선기구감 禪家龜鑑〉

증보판

『김군에게 들려준 0의 행복』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부문 우수교양도서 선정



2009년 석가탄신일에 즐음하여 일본에서도
출간예정 (일본 NHK 국장 후지모토 PD번역)

나의 한국어 스승인 존경하는 이규항 선생님께서
불교에 관한 수필집을 출간하셨다고 한다.
놀라운 일이다. 이게 바로 인연인 것인가?
이 수필집을 좋은 안내역으로 무(無)와 무한(無限)에
대해 생각해 볼까 합니다.

- 후지모토 토시가스(NHK 국제방송국 CP) 추천사 중에서

이규항 著 /글누림/정가 9,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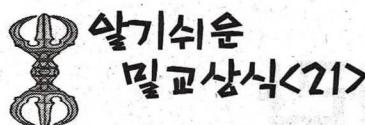
0의 행복은 행복의 황금률이다!
붓다의 깨달음을 '음식의 맛과 0'의
키워드로 풀다!

깊은 사려와 직관에서 비롯한 영혼의 울림
-석성우 스님 (불교TV회장)

석가모니부처님의 밥의 향기와 0의 행복이 가득
담긴 이 책을 보시해드리고 싶습니다
-고광수 (중국 북경방송 CRI교수)

우리 모두는 마음의 평화를 원하죠. 이 책은
그 해답을 당신께 제시합니다.
-손범수 (방송인, 전 KBS 아나운서)

나의 마음자는 어디일까를 기능하며 한번더
꼼꼼히 읽어볼까 합니다.
-정은아 (방송인, 전 KBS 아나운서)



밀교의 경전③

금강계만다라와 오상성신관을 설한 경전 - 금강정경(金剛頂經)

『금강정경(金剛頂經)』은 밀교에서 『대일경』과 함께 양부 대경으로 중요시되고 있다. 이 경전은 7세기 중엽에서 말에 걸쳐 남인도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원래는 18회(18개의 다른 설법을 모은 것) 10만 송의 광본(廣本)으로 이루어진 대경이었으나 『금강정경』의 초회 부분 만이 전해진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10만 송 18회의 경전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금강정경』이라는 관사가 붙거나 혹은 『금강정경』계통의 여러 경전들을 일컬 편의상 『금강정경』이라고 한다.

『금강정경』의 유래에 대해서는 금강지(金剛智) 삼장이 구술하고 불공(不空)삼장이 필사한 『금강정경대유가비밀심지법문의결(金剛頂經大瑜伽秘密心地法門義訣)』 卷上에 이렇게 나와 있다.

원래 이 경은 백천송의 광본이 있는데 제불대보살의 깊고 깊은 비밀의 세계를 보인 것으로서 성문이나 연각, 인천의 얕은 지혜로는 들어보지도 못한 것이다. 이 경의 크기는 침상과 같고 높이는 사오척이나 되는 것으로 그 속에는 무량한 계승이 들어 있으며 불멸 후 수백년간 남천축의 철탑 안에 보관되어 있었다. 천축국의 불교가 쇠퇴하려고 할 때 한 대덕(용맹보살이라고도 함)이 나타나 대비로자나 진언을 지송하자 비로자나불이 몸을 나타내어 이 법문을 설했고 그것을 받아 적자 사라졌다. 이것이 지금의 『비로자나염송법요』 1권이라고 한다. 그때 대덕은

었다. 이 경은 십만송의 『금강정경』으로부터 추려낸 것이라고 하며 금강계만다라의 건립과 간정의례를 상세하게 설하고 있다. 전설에 의하면 금강지 삼장은 원래 10만 송의 광본을 신고 중국에 밀교를 전하려 오던 중 폭풍우를 만나 광본은 바닷속에 버리고 초회분에 해당하는 약본(略本)만 신고 중국에 도착했다고 한다.

금강지 삼장은 서기 719년에 중국에 도착하여 720년(당 개원 8년)에 낙양에 이르렀다. 이때부터 그는 당 현종의 후원 아래 낙양과 장안에서 20여년 간에 걸쳐 『금강정경』계통의 경전과 의궤를 번역했다. 이로써 중국에서도 선무의 삼장의 『대일경』 계통의 밀교와 함께 쌍벽을 이루며 본격적인 밀교가 도입되었다 것이다.

선무의 경전 번역을 도운 것은 중국스님 일행(一行)

이었다. 일행 스님은 『대일경』을 번역한 선무의 삼장

의 제자이기도 하고 금강지 삼장의 제자가 되는 셈이다.

이후 불공삼장이 『금강정경제여래진실십 대승현증대교왕경(金剛頂一切如來眞實攝大乘現證大教王經)』(3권)이라는 이름으로 번역했으며 이것도 또한 『금강정경』의 초회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다음으로 송나라 때 시호(施護)가 『불설일체 여래금강삼업최상비밀 대교왕경(佛說一切如來金剛三業最上秘密大教王經)』(7권)을 번역했는데 이것 또한 『금강정경』의 초회에 해당하는 것으로 양으로는 다른 번역본에 비해 가장 방대하다. 불공 역은 시호

역 금강계품 가문데의 대만다라분만을 부분역한 것이다. 이처럼 『금강정경』은 어느 것이나 18회로 이루어진 광본의 초회에 해당하는 것만 번역되었고 나머지 회는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초회만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다.

『금강정경』의 내용은 대략 이렇다. 먼저 대일여래의 분신인 일체여래가 일체의성취보살(一切義成就菩薩)이 수행하는 곳에 나타나 “일체여래의 진실을 모르고 어찌 고행을 하고 있느냐?”고 묻는다. 이 질문에 놀란 일체의성취보살은 “일체여래의 진실이란 무엇이며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수행을 해야 하느냐?”고 묻는다.

여기 대여래는 오상성신관(五相成身觀)에 의하여 스스로가 부처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가르침을 내린다. 일체여래의 깨우침에 의하여 일체의성취보살은 오상성신관(五相成身觀)을 닦아 설불하여 금강계여래가 된다. 이어서 경에서는 금강계여래의 깨달음의 경지를 나타내는 금강계만다라의 건립 방법에 대하여 설하며 금강계삼십칠존의 진언을 설하고 제자를 만다라로 이끄는 관정에 대해 설한다.

중국에는 인도 출신의 금강지 삼장이 『금강정유가종 약출연경(金剛頂瑜伽中略出念誦經)』(4권)이라는 이름으로 번역하여 소개한 것이 『금강정경』 도입의 시초

| | 대일경 | 금강정경 |
|------------|--------------------------------------------------------------------------------------------------|--------------------------------------------------------------------------------------------|
| 성립연대 | 7세기 초에서 중엽에 걸쳐 성립 | 7세기 중엽에서 말에 걸쳐 성립 |
| 한역, 번역가 | 선무외(637~735) | 금강지(671~741) 불공(705~774) 시호(980~1015) |
| *근본경전만 있다. | *18회 10만 송으로 이루어진 광본이 있다고 하며 실제로는 초회만 있다 | *18회 10만 송으로 이루어진 광본이 있다고 하며 실제로는 초회만 있다 |
| 경전의 차이점 | *경전의 주인공은 대일여래와 금강실타이다. *대비태장생만다라, 즉 태장계만다라를 중심으로 설함 *오자임신관, 아자관을 설함 *대일여래가 법계정인을 하고 있음 | *경전의 주인공은 대일여래의 분신인 일체여래와 일체의성취보살이다. *금강계만다라에 대해 설함 *오상성신관을 설함 *대일여래가 법계정인을 하고 있음 |

불교설화 <31>

묘정의 여의주

- 경주 금광정(金光井)

로 당나라에 가서 닥칠 난관 극복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아옵니다.』

왕은 허락하였다.

수만 리 뱃길을 따라 당나라에 도착한 묘정은 천자를 비롯 문무대관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다. 그러던 어느 날 교육행정을 맡은 대신 지관이 천자에게 아뢰었다.

『폐하,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묘정은 조금도 존경할 인물이 못되옵니다.』

『지관은 무슨 말을 하는고?』

천자는 노하여 지관을 노려봤다.

『폐하, 황공하오이다. 세상사람들이 묘정에게 사랑을 느끼는 그 인품과 상에 있는 것이 아니옵고...』

『그렇다면?』

『묘정이 무엇인가 신령한 물건을 몸에 지닌 텁인 줄 아옵니다.』

묘정의 품속에서 영롱한 구슬이 나오자 왕은 추상같은 호령을 내렸다.

『일찍이 집이 네 개의 여의주를 갖고 있다가 지난 봄 그 하나님을 잊어 버렸다. 그것이 묘정의 몸에서 나오다니... 내 너를 참할 것이로써 사마입을 가상히 여겨 목숨을 살려 주니 이 길로 곧 네 나라로 돌아가거라.』

묘정은 허둥지둥 신라로 돌아왔다.

실의에 빠진 그의 얼굴에서는 자비로운 미소의 빛이 가시었다. 사람들은 다시 그의 용모를 비웃었다.

묘정은 다시 한번 여의주를 갖고 싶어 우물 기에 나와 자라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자라는 나타나지 않았다. 여의주와 자리에 대한 생각과 종오가 뒤엉켜 가슴 속에서 소용돌이쳤다.

사람들은 침식을 잊고 우물만 들여다보는 그를 미쳤다고 손가락질 했다.

어둠이 깔리고 물 속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묘정은 눈을 감았다. 궁중 생활에 묘정은 그만 기도를 잊고 있었다.

그 해 가을, 나라에서는 당나라 천자에게 하례 몰릴 정사사신(丁使使臣)을 보내게 됐다. 간택된 사신은 한사코 묘정과 함께 가길 원했다.

『상감마마, 이번 길은 단순한 새해 하례만을 위함이 아니오니 묘정 스님과 함께 가도록 윤허하여 주옵소서.』

『험한 뱃길에 묘정은 왜?』

『묘정은 비범한 도를 지니고 있으므로 여의주를 찾고 있다.』

『일관된 노력이 쌓이면, 본체의 빛을 발할 수 도 있겠지만 견성으로 가는 여정의 모습이 방편이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심일화

바라밀 공부방

happylog.naver.com/baramildo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 8-8 정각사 내

☎ 051)552-0705

여러분도 후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은행 094-059285-04-046

바라밀 이야기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
2008년 가을호

이제 나도 중학생

문진술(초6)

8월 중순부터 시작한 중학교 1학년 수업, 수학만 하는 것이지만, 이 한과목도 나에게는 너무나 벅찼다. 그리고 6학년 수준에서 중 1 수준으로 올라가는 차이는 너무나 크게 느껴졌다. 그래서 초등학교 내용을 알아야 중학교를 올라갈 수

있기 쉽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한번 듣고 이해가 안 되자 선생님이 한번 더 가르쳐 주셨다. (중략) 중학생이 되고 싶었는데 시간이 다가올수록 초딩으로 계속 남고 싶어진다. 아동센타에서 바로 공부시켜 줘서 고맙고 감사한데...

• 공부방 이용대상 : 초등학교 1학년 → 6학년(3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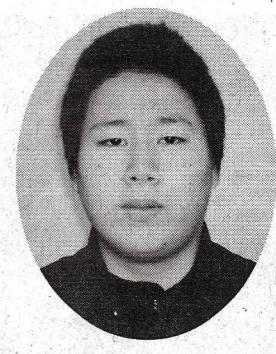
• 이용시간 : 학기중 오후 2시 → 6시(점심 제공)

방학중 오전 10시 → 6시(저녁제공)

• 이용방법 : 방문 - 입소상담 - 통보 - 이용

| 시간표 | 월 | 화 | 수 | 목 | 금 |
|-------|----|--------|---------|--------|----|
| 3시30분 | 미술 | 영어(저) | 수학(저) | 영어(저) | 요가 |
| 4시30분 | | 원어민(고) | 오키리나(고) | 원어민(고) | |
| 4시30분 | | 영고(고) | 수학(고) | 영고(고) | |
| 5시30분 | | 원어민(저) | 오키리나(저) | 원어민(저) | 국악 |

총지문예

서민정
동해중 3-2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을 완전히 휘어잡고 있어서 모든 아이들은 석대의 편이고, 석대의 말이라면 절대복종이다. 병태는 불합리와 폭력이 있는 이런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석대에게 저항하고, 아이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려고 여러 방법들을 사용한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석대의 권위와 그 권위 아래 있는 아이들의 행동으로 물거품이 되고 만다. 그리고 부모님, 선생님도 석대의 편을 든다. 그렇게 되어 병태

잡혀가는 석대의 모습을 보게 된다. 나도 솔직히 이럴 때가 많다. '어떻게 해야 더 올바른가'를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나에게 이익인가'를 생각할 때가 더 많다. 그래서 이익을 위해 친구를 이용할 때도 있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할 때도 있다. 나중에는 그러한 행동에 대해 후회도 하지만, 또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된다. 이 글을 읽을 때도 약간 마음에 찔렸다. 이제는 그러한 행동

어떻게 살 것인가

는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온갖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하지만 담임 선생님이 비뀌고 석대의 비리가 드러나면서 석대는 몰락하게 된다. 그런데 모든 아이들이 석대의 잘못을 말할 때 병태는 석대의 잘못을 말하지 않는다. 석대는 떠나고 그 반은 처음에는 약간 불안정했지만 정성적인 반으로 돌아가게 된다. 시간이 흘러서 병태는 고급 세일즈맨이 되었지만, 실패하여 실업자가 되고, 그 때 다시 석대가 떠오르게 된다. 병태는 많은 사람들이 석대를 비웃어도, 석대를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고 느낀다. 하지만 결국 병태는 형사에게

을 하지 말고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겠다. 그리고 영원할 것 같은 석대의 권위가 무너진 것을 볼 때, 결국 악의는 패배하고 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삶을 살다보면 분명히 불합리하고 이루어지지 말아야 할 것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이 개선되지 않는 것도 볼 수 있다. 그래서 사회에 실망하고, 사회에서 멀어지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도 가끔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밝혀지고 고쳐지고 바로잡혀진다는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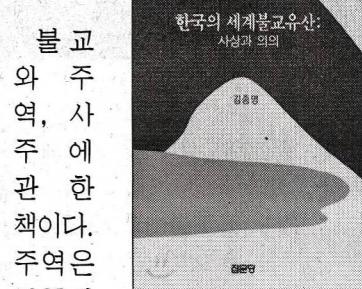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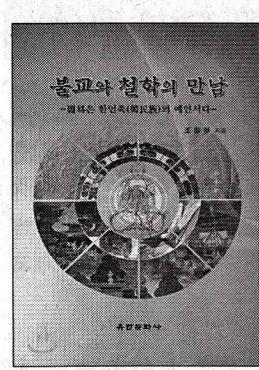
이 달의 추천도서

을 것이다

한국의 세계 불교 유산

불교와 철학의 만남

조철현 지음/ 유한 문화사



김종명 지음/ 집문당

유엔 교육과학문화 기구 (UNESCO)에 등재된 한국 세계 불교 유산을 분석한 책이다. 유

산의 역사, 내용, 사상적 배경, 특징, 가치 및 의의를 검토하였다.

제1장 세계유산, 제2장 경주남산지구, 제3장 황룡사지구, 제4장 불국사, 제5장 석불사(석굴암), 제6장 해인사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고려대장경), 제7장 해인사 장경판, 제8장 직지, 제9장 한국 세계 불교 유산의 의의로 구성되어 있다.

동양철학의 근본 원리이며, 중국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이론인데, 저자는 5600년 전에 우리 민족의 손에 의해 만들어졌고, 과거 동이족의 찬란했던 역사를 뒤로 한 채 한반도로 밀려온 것도 주역에서 밝혀져 있다고 주장한다.

생한

한국의 역사, 내용, 사상적 배경, 특징, 가치 및 의의를 검토하였다.

제1장 세계유산, 제2장 경주남

산지구, 제3장 황룡사지구, 제4

장 불국사, 제5장 석불사(석굴

암), 제6장 해인사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고려대장경), 제7장

해인사 장경판, 제8장 직지,

제9장 한국 세계 불교 유산의 의

의의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은 1945년 출가해

이판으로, 사판으로 살았고, 현

재 조계종의 최고 어른 중 한분

으로 추앙받고 있다.

스님은 2008년 10월, 전계대회

상으로 위촉되었고 60년을 읊은

수행자로 살아왔다. 또한, 조

계사, 은해사, 쌍계사 등 본사

주지 소임을 맡은 스님의 독특

한 이력을 엿볼 수 있다. 스님이

출가한 1940년대부터 2000년대까

지 절집 풍경과 수행자들의 이

야기를 담아 우리나라 불교의

근현대사를 살펴볼 수 있다.

나는 그의 글을 통해

우리의 역사, 내용, 사상적 배경, 특징, 가치 및 의의를 검토하였다.

제1장 세계유산, 제2장 경주남

산지구, 제3장 황룡사지구, 제4

장 불국사, 제5장 석불사(석굴

암), 제6장 해인사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고려대장경), 제7장

해인사 장경판, 제8장 직지,

제9장 한국 세계 불교 유산의 의

의의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은 1945년 출가해

이판으로, 사판으로 살았고, 현

재 조계종의 최고 어른 중 한분

으로 추앙받고 있다.

스님은 2008년 10월, 전계대회

상으로 위촉되었고 60년을 읊은

수행자로 살아왔다. 또한, 조

계사, 은해사, 쌍계사 등 본사

주지 소임을 맡은 스님의 독특

한 이력을 엿볼 수 있다. 스님이

출가한 1940년대부터 2000년대까

지 절집 풍경과 수행자들의 이

야기를 담아 우리나라 불교의

근현대사를 살펴볼 수 있다.

나는 그의 글을 통해

우리의 역사, 내용, 사상적 배경, 특징, 가치 및 의의를 검토하였다.

제1장 세계유산, 제2장 경주남

산지구, 제3장 황룡사지구, 제4

장 불국사, 제5장 석불사(석굴

암), 제6장 해인사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고려대장경), 제7장

해인사 장경판, 제8장 직지,

제9장 한국 세계 불교 유산의 의

의의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은 1945년 출가해

이판으로, 사판으로 살았고, 현

재 조계종의 최고 어른 중 한분

으로 추앙받고 있다.

스님은 2008년 10월, 전계대회

상으로 위촉되었고 60년을 읊은

수행자로 살아왔다. 또한, 조

계사, 은해사, 쌍계사 등 본사

주지 소임을 맡은 스님의 독특

한 이력을 엿볼 수 있다. 스님이

출가한 1940년대부터 2000년대까

지 절집 풍경과 수행자들의 이

야기를 담아 우리나라 불교의

근현대사를 살펴볼 수 있다.

나는 그의 글을 통해

우리의 역사, 내용, 사상적 배경, 특징, 가치 및 의의를 검토하였다.

제1장 세계유산, 제2장 경주남

산지구, 제3장 황룡사지구, 제4

장 불국사, 제5장 석불사(석굴

암), 제6장 해인사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고려대장경), 제7장

해인사 장경판, 제8장 직지,

제9장 한국 세계 불교 유산의 의

의의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은 1945년 출가해

이판으로, 사판으로 살았고, 현

재 조계종의 최고 어른 중 한분

으로 추앙받고 있다.

스님은 2008년 10월, 전계대회

상으로 위촉되었고 60년을 읊은

수행자로 살아왔다. 또한, 조

계사, 은해사, 쌍계사 등 본사

주지 소임을 맡은 스님의 독특

한 이력을 엿볼 수 있다. 스님이

출가한 1940년대부터 2000년대까

지 절집 풍경과 수행자들의 이

야기를 담아 우리나라 불교의

근현대사를 살펴볼 수 있다.

나는 그의 글을 통해

우리의 역사, 내용, 사상적 배경, 특징, 가치 및 의의를 검토하였다.

제1장 세계유산, 제2장 경주남

산지구, 제3장 황룡사지구, 제4

장 불국사, 제5장 석불사(석굴

암), 제6장 해인사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고려대장경), 제7장

해인사 장경판, 제8장 직지,

제9장 한국 세계 불교 유산의 의

의의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은 1945년 출가해

이판으로, 사판으로 살았고, 현

재 조계종의 최고 어른 중 한분

으로 추앙받고 있다.

스님은 2008년 10월, 전계대회

상으로 위촉되었고 60년을 읊은

수행자로 살아왔다. 또한, 조

계사, 은해사, 쌍계사 등 본사

주지 소임을 맡은 스님의 독특

한 이력을 엿볼 수 있다. 스님이

출가한 1940년대부터 2000년대까

지 절집 풍경과 수행자들의 이

야기를 담아 우리나라 불교의

근현대사를 살펴볼 수 있다.

나는 그의 글을 통해

우리의 역사, 내용, 사상적 배경, 특징, 가치 및 의의를 검토하였다.

제1장 세계유산, 제2장 경주남

산지구, 제3장 황룡사지구, 제4

장 불국사, 제5장 석불사(석굴

암), 제6장 해인사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고려대장경), 제7장

해인사 장경판, 제8장 직지,

제9장 한국 세계 불교 유산의 의

의의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은 1945년 출가해

이판으로, 사판으로 살았고, 현

재 조계종의 최고 어른 중 한분

으로 추앙받고 있다.

스님은 2008년 10월, 전계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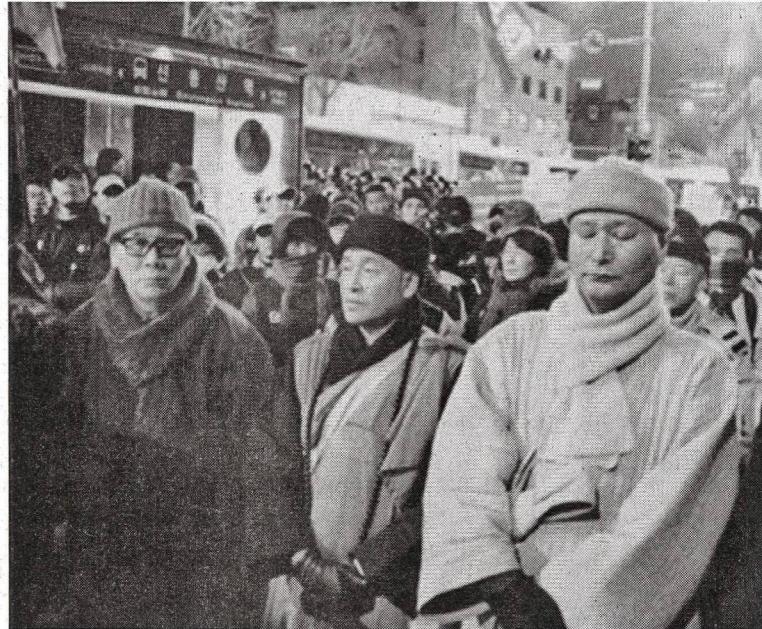
상으로 위촉되었고 60년을 읊은

수행자로 살아왔다. 또한, 조



교계소식 불교계 단체 '용산참사' 강력 진압 비난

실천승가회·불교인권연대 "책임자 처벌" 촉구



◆ 지난 21일 용산참사비상대책위 주최로 열린 경찰의 강경 진압 규탄 집회에 참가한 불교인권위 소속 스님들의 모습.

서울 용산 철거민 참사와 관련해 불교계가 잇따라 성명을 통해 경찰의 강경진압과 책임자 처벌을 주장하고 나섰다.

불교인권연대·불교평화연대는 1월 21일 성명서를 발표, "용산 참사는 이명박 정부의 정치적 부재이며 인권을 무시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들은 "경찰이 사전

퇴,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의 경찰 청장 내정 취소 등을 촉구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대표 법 안스님)도 같은 날 발표한 '용산 철거민 참사에 대한 본 회 입장'을 통해 "이번 참사는 개발지상주의에 빠져 생명을 경시하는 정부의 오만함으로부터 생긴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실천승가회는 "이번 참사는 최소한의 생계와 이주 대책을 요구하는 사회적 약자를 정권이 법 집행이라는 명분으로 죽음으로 내몬 명백한 국가범죄행위"라며 "국민의 이성과 상식, 기본권마저 힘으로 억압하려는 독재적 발상이 빛어낸 예견된 사고"라고 밝혔다.

이어 "참사의 직접적 당사인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즉각적인 파면과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불교인권위원장 진관스님과 인권위 소속 스님들은 지난 21일 오후 7시부터 서울 용산구 재개발 현장에서 열린 경찰의 강경 진압 규탄 집회에 참석, 희생

자들을 애도하고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했다. 진관스님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앞으로도 집회에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불교인권위는 지난 23일 참사현장에서 희생자들을 위로하는 합동 위령제를 개최했다.

불교어린이지도사 고시
2월 28일

오는 2월 28일 오후 2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과 부산 대한불교교사대학 강당에서 제3회 불교어린이지도사고시를 동시에 실시한다.

응시원서는 조계종 홈페이지 (www.buddhism.or.kr)나 키즈붓다 게시판 (www.kidsbuddha.org)에서 내려 받아 작성한 뒤 구비서류를 갖춰 오는 20일까지 우편 및 방문,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포교원 어린이청소년팀으로 접수하면 된다.

합격자 발표는 오는 3월 19일 종단 홈페이지와 키즈붓다 어린이 포교뉴스 등을 통해 공지된다.

불교TV - 조계종, 방송콘텐츠 'HDS' 개발

1월 28일 오후 5시 20분 불교TV서 방영

어린이 영어법회 활성화를 위한 방송 콘텐츠 개발돼 눈길을 끈다.

조계종포교원은 1월 20일 "불교텔레비전과 공동으로 불교 어린이 영어 교실 방송콘텐츠 'Hello Dharma School~(이하 HDS)"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포교원이 불교유일의 유선방송인 불교TV와 공동으로 제작한 'HDS'는 어린이법회가 활성화돼 있지 않은 현 교계현실을 감안했을 때 어린이법회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고 법회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하고 및 전국 각 사찰의 운영 참여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HDS'는 영어법회 영상을 통해 어린이들이 영어와 불교를 함께 배울 수 있도록 제작됐다. 영어 문답을 통해 부처님 일대기 및 불교상식을 놀이 방식으로 배우는 등 아이들의 흥미와 관심을



◆ 불교 어린이 영어 교실 방송콘텐츠 'Hello Dharma School~'의 한 장면

유도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밖에도 'HDS'는 방영과 함께 이를 활용, 어린이 영어법회 교재를 제작하고 방송 영상, 플래시 북, 워크북, 패닉스 등 다양한 부교재도 함께 제작해 원

소스 멀티유스('one source multi-

use')방식으로 교육 효과 및 부가 가치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HDS는 1월 28일 오후 5시 20분 불교TV를 통해 첫 방영됐으며 매주 1회 총 24회분으로 제작돼 방영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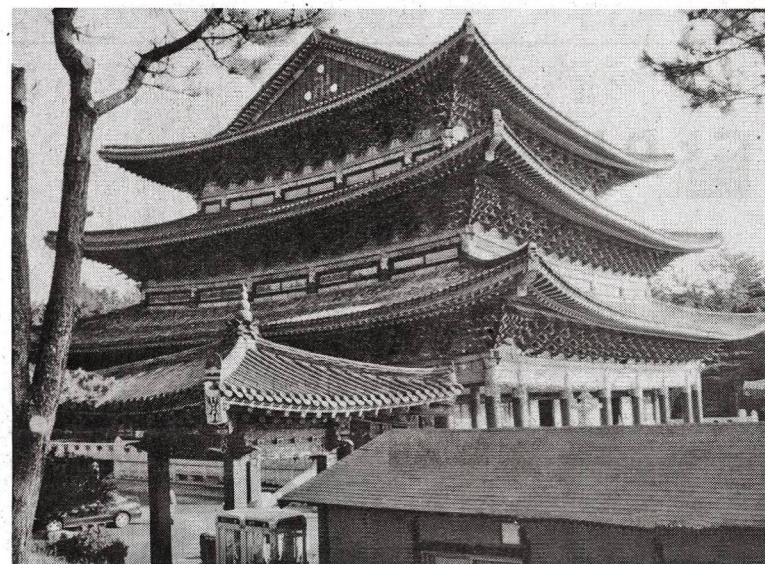
성지 순례지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관광안내지에 게재하고 시설물의 개·보수비 지원은 물론 순례 관광객을 유치하는 종교단체에는 별도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제주도 주요 불교 사찰로는 탐라(耽羅)시대 사찰로 전해지는 한라산 1천200m '불래오름' 중턱의 존자암지(尊者庵址). 제주도기념물 제43호)와 텁플스테이 사찰인 관음사·법화사·약천사·광명사 등이 있다.

개신교의 경우에는 한국인 최초의 목사이자 한국교회 최초로 임명·파송된 한국인 선교사 이기풍 목사를 기념하는 이기풍선교관을 비롯해 1951년 모슬포 육군 제1훈련소에 지어진 강병대(強兵臺)교회 등이 있다. 천주교는 한국 최초의 천주교 신부인 안드레이 김대건 신부의 제주도 표착을 기념하는 성당과, 1953년부터 제주에서 기난 구제와 동축산업 발전에 헌신한 맥크린티 신부가 설립한 성 이시돌센터·황사평 순교자 묘역 등이 있다.

제주도, 관내 종교성지 발굴한다

도내 종교 대표자 의견수렴… 불교 존자암지 등



◆ 제주 악천사 전경

제주도가 각 종교의 성지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불교를 비롯한 개신교·천주교 등 의미 있는 종교시설을 활용해 관광객 유

치에 나서겠다고 1월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도내 종교별 대표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순례 관광지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불교신도 늘어났다 문체부 '종교현황' 발표

불교 최근 6년새 6% 증가, 103개 종단 2,1935사찰

천주교 증가, 개신교 감소 추세 현저

최근 6년 사이 불교 신도가 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천주교 신자는 15%가 증가했으며, 개신교는 36%의 감소를 보여 대조를 이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20일 '2008년 한국의 종교현황'을 발표했다. 책자 형태로 발간된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불교신도는 지난 2002년에 비해 6%가 증가한 3958만 1983명으로 조사됐다. 또 103개 종단에 2만1935곳의 사찰이 자리하고 있으며, 스님 등 교직자는 4만9408명으로 집계됐다. 교직자는 지난 2002년에 비해 19% 증가한 수치다. 이번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에서 각 종단을 통해 제출받은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또 이번 조사에 따르면 개신교의 경우 신자가 인구는 1194만 4174명으로 2002년에 비해 36% 가 감소했다. 교직자수도 24%가 감소해 불교와 대조를 보였다. 천주교는 신자 15% 증가와 교직자 17% 증가로 꾸준했다. 원불교는 11%, 유교는 70%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전통사찰은 서울에 58곳과 부산 30곳, 대구 19곳 등 전국에 933곳이 지정돼 있으며, 불교계 재단법인 69곳과 사단법인 115곳이 등록돼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종무실 관계자는 "이 자료는 각 종교단체가 제출한 것을 토대로 하고 있어 수치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

〈한국불교총람〉 2008년판 발행

불교진흥원, 운주사서 배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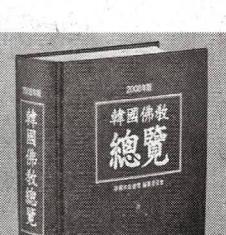
종단, 사찰, 단체, 법인 등 한 국불교의 외형에 대한 자료를 망라한 〈한국불교총람〉 2008년판이 나왔다.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민병천)은 16일 〈총람〉 2008년판을 발행, 도서총판 운주사(02-3272-7181)를 통해 배포에 나섰다고 밝혔다. 〈총람〉은 1993년 처음

발행한 데 이어 98년 개정판을 냈으며, 이번이 개정 3판에 해당한다. 2008년판에는 종단 160여 곳, 법인 400여 곳, 기관 및 단체 2000여 곳, 사찰 1만5000여 곳,

인명 2500여 명에 대한 기본정보를 담았다. 또 98년 이후 발간된 도서·논문을 수록했으며, 불교 전래 이후 현재까지의 불교 관련 사건을 연표로 정리해 개재했다. 4×6배판(B5) 1300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다.

불교진흥원은 "불교종단, 불교 단체, 불교법인, 사찰, 불교관련



인명, 불교 관련 도서·논문, 한국 불교연표 등 산재한 한국 불교의 제반 현황을 종합, 일목요연하게 정리함으로써 불교문화의 체계적 조망과 그 창달에 기여하고자 총람을 발행했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불교진흥원은 〈총람〉에 실린 내용을 향후 웹상에서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하여 서비스할 예정이며, 지면에 다 게재하지 못한 부분도 함께 게재하여 해당 기관·단체, 개인 등이 직접 열람하고 해당 자료를 수정,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웹상에 도입하여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밀교의 역사와 교리에 대한 국내 최초의 본격적 개론서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이운길 교수 외 7명의 밀교학자
가 공동 집필 ...

밀교사상사개론

국판 / 청가 15,000원 / 불교총지출판부

죽자대명왕진언<음마니반메훔>의 유래와 공덕을 철학
경전으로 본 경을 지나기만 하여도 무량한 복덕과
신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불설대승장엄보왕경

변경국판 / 청가 7,000원 / 불교총지출판부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의 불교의 역할에 대하여 서술하였으며, 불교의 특징과 구분에 대한 설명을 통하여 불교에 대한 개략적인 배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

불교, 교양으로 읽다

국판 / 청가 15,000원 / 민족사

한국불교의식의 대명사인 천수경에서 왜 처음과 끝이
진언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그 비법을 밝히고 있으며
본심요점은 통해 누구든 성불할 수 있는 원리를 제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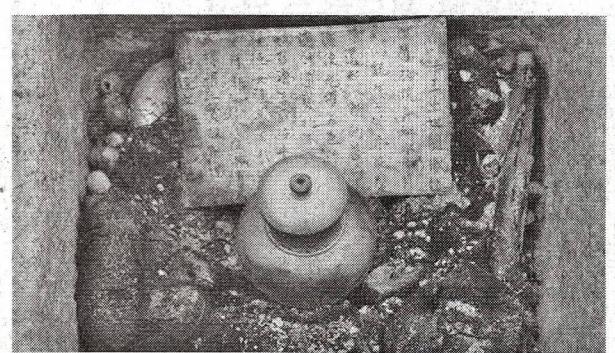
어떻게 성불할 것인가

국판 / 청가 8,000원 / 운주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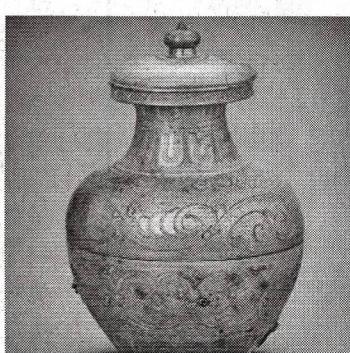


교계소식 익산 미륵사지 국보급 금제사리구 발견 미래에셋, 승가원 아동복지시설 '떡국잔치'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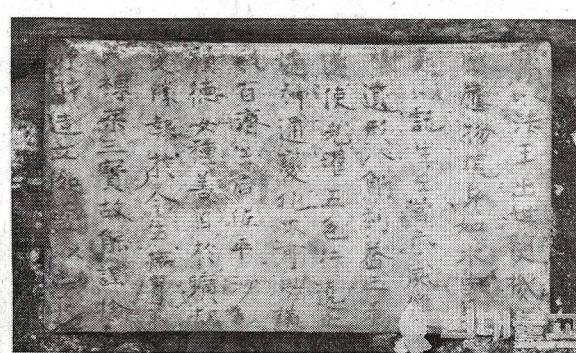
문화재청, 유물 500여 점 수습 발표



◇ 익산 미륵사지에서 발견된 백제 금동사리장엄구 일체



◇ 금제 사리호



◇ 193지의 명문이 확인된 금제사리봉안기

익산 미륵사지석탑(국보 제11호)에서 백제 금동대향로(국보 제287호)에 버금가는 국보급 금제사리구가 출토됐다. 지금까지는 백제 사리구로는 충남 부여 왕흥사지 사리장엄구(2007년 10월 출토)가 유일했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김봉건, 이하 연구소)는 1월 19일 익산 미륵사지 현장에서 설명회를 열고 미륵사지석탑에서 보수정비를 위한 해체조사 중 발견한 사리장엄물을 공개했다.

금제사리호와 금제사리봉안기, 은제관식 등 500여 점에 달하는 유물들은 주로 석탑 1층 십주 상

면 중앙 사리공에서 14일 발견됐다. 발견 당시 500여 점의 유물들은 사리공 밑바닥에 깔린 녹색 유리판 위에 천으로 감싸져 있었다. 작은 병에 보주형 뚜껑이 덮힌 금제사리호(높이 13cm, 어깨 폭 7.7cm)는 사리장엄의 핵심으로 사리공 중앙에 모셔져 있었다. 연구소 관계자는 “금제사리호를 X선 내부 투시 결과 내외함의 이중구조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금제사리호와 금제사리봉안기, 세로 10.5cm)는 주철로 글씨가 선명히 드러나 있다. 김상현 교수(동국대) 해석 결과, 백제 왕

후가 재물을 회사해 익산 미륵사 청전하고 기해년(己亥年, 639년)에 사리를 봉안해 왕실의 안녕을 기원했다는 내용이었다.

학계 전문가들은 “발견된 금제사리봉안기에는 미륵사의 창건목적과 시주(施主), 석탑의 건립연대 등이 정확히 밝혀져 있다”면서 “문헌사 연구의 부족함을 보완할 금석문 자료인 동시에 백제시대 서체(書體) 연구에서도 큰 획을 그을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는 유물”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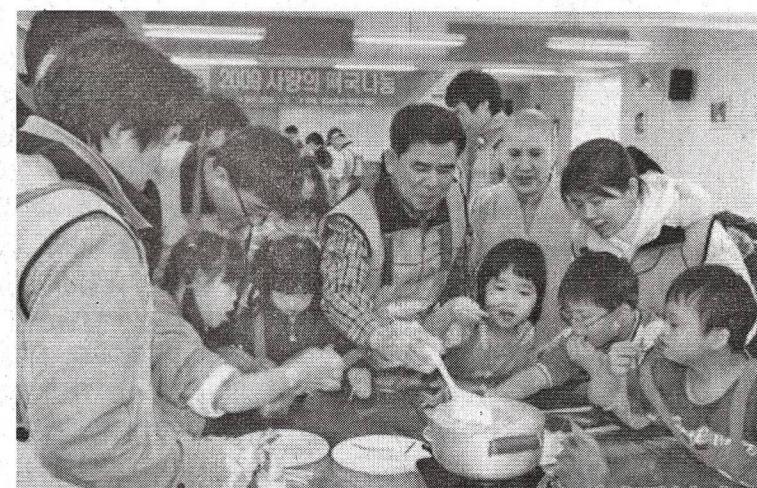
발견된 사리장엄은 다른 사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다양한 종류가 일괄로 출토됐다. 특히 정

교하고 세련된 가공수법은 백제 금속공예의 우수성을 보여줌과 동시에 국보급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국보급 유물로 평가된다.

김봉건 소장은 “이번 사리장 엄 발견으로 미륵사 창건에 관한 <삼국유사>와 <삼국사기> 기록의 정확성이 입증됐고 백제석탑의 사리봉안 기법과 의례를 새로이 밝힐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이번 조사는 무령 왕릉 발굴과 능산리 금동대향로 조사 아래 백제지역 최대의 고고 학적 성과로 판단된다”며 “백제 문화 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소는 수습된 유물에 대해 보존처리 후 심층조사를 거쳐 그 결과를 관심 있는 연구자와 일반인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 미래에셋 지원봉사단은 1월 17일 승가원 아동복지시설(관장 동옥)에 방문해 시설아동들과 정겨운 한때를 보냈다.

평소 사회공헌에 관심이 많고, 불자로 알려진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의 ‘미래에셋봉사단’이 1월 17일 승가원 장애아동시설(관장 동옥)을 방문해 설날맞이 ‘떡국 잔치’를 벌였다.

이날 행사에서 미래에셋 임직원 30여 명은 가족들과 설 명절을 보내지 못하는 뇌병변·지적 장애아동들을 둘보며 정겨운 한 때를 보냈다.

봉사단원들은 시설을 둘러 본 후 시설 어린이들과 찍을 짓고 각자 맡은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다. 만든 요리는 떡국, 갈비찜, 주먹밥, 산적 등.

동옥 스님은 “이번 행사를 통

주 방문해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버지께서 따라서 온 송우현(양영초 3학년)군은 “아이들이 순수하고 밝아 너무 좋았고 앞으로도 좋은 경험을 쌓고 싶다”고 말했다.

봉은사,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 3주기 추모제 봉행

서울 봉은사는 1월 29일 경내 법왕루에서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 고(故) 백남준(1932~2006) 선생의 태계 3주년을 기리는 추모제를 봉행했다.

봉은사 주지 명진스님, 이영철 백남준 아트센터 관장과 유족, 봉은사 신도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추모제는 고인의 명복을 비는 독경, 유족들의 현화, 향공양 순으로 진행됐다.

봉은사는 백남준 선생이 독실한 불교신자인 어머니를 따라 자주 찾았던 추억의 장소로 알려져 있다. 이에 사찰측은 지난 2007년부터 경내 법왕루에서 백남준 선생의 유해와 함께 ‘백남준 데드마스크’를 전시하고 매년 1월 29일 추모제를 지내오고 있다.

“대학내 선교행위 안된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 강력 반대



◇ 종자연의 송실대의 채플강요 학칙 개정 촉구 기자회견 모습

종교자유정책연구원(대표 박광서)은 1월 29일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 3조 2항'은 사립대학에 대해 대학내 종교시설을 설치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종자연은 네가지 이유를 들어 개정안 이의점을 제기했다. 첫째로 대학교사 및 교지 활용에서 상위법인 사립학교법에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규칙으로 적용해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둘째로는 대학내 종교시설은 종교편향이며, 종교계 대학일지도 대학의 목적은 ‘교육’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셋째로는 대학내 종교시설로 인한 종교간 위화감 조성, 넷째로 특정 종교시설이 교육시설로 활용시 출입강요로 인한 소극적 종교자유 침해를 들었다.

법예고한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 3조 2항’은 사립대학에 대해 대학내 종교시설을 설치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법예고한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 3조 2항’은 사립대학에 대해 대학내 종교시설을 설치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국민위해 ‘100만독 관음주송’ 추진할 것”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 종단 주요 종무계획 발표



“불교가 자비를 바탕으로 국민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종교로 자리매김해 신명나는 한 해 천태종 총무원장 대합니다.”

천태종은 우선 2011년 탄신 100주년을 맞이하는 상월원각 대조사 기념사업 준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현재 초고가 나와 있는 상월원각 대조사의 행장·어록 등을 정리한 소설 출판을 마무리 하고, 대조사의 탄생, 전법, 수행처 등에 대한 성

역화 작업에 착수 한다. 특히 천태종은 대조사가 강조했던 관음도송의 유지를 계승하기 위해 2009년 말부터 ‘100만독 관음주송’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산 스님은 “상월원각 대조사 탄신 100주년을 앞두고 한 지역당 매일 5시간씩 100일 동안 관음주송하고, 30개 지역에서 릴레이로 독송하는 사업을 계획 중”이라며 “관음주송을 통해 마음의 경계를 새롭게 열고, 생활에서도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템플스테이와 연계한 새터민 정착 사업, 성지순례 등의 남북 문화 교류 사업도 꾸준히 진행한다. 정산 스님은 “현재 남

쪽깃한 면발이 유지 된다.

◀ 냄비에 붙어 있는 카레로 오믈렛을 만든다

카레가 남아 있는 냄비에 밥을 넣고 뒤적인다. 여기에 살짝 익힌 계란을 넣으면 카레 오믈렛 탄생. 냄비가 청소되어 설거지 물도 절약되므로 일석이조.

◀ 500ml 페트병에 쌀을 보관 깨끗이 씻어 말린 500 ml들이 페트 병에 쌀을 가득 넣으면 땅 3 흠이 들어간다. 한 번에 3 흠 분량의 밥을 짓는 경우가 많은 집에는 여러 개의 페트 병을 두고 사용하면 편리하다.

◀ 분유 통에 밀가루 보관

분유 통(950~980 g들이 기준)에 1 Kg들이 밀가루를 옮겨 담는다. 밀폐가 잘 되는 데다 입구가 크고 계량 스푼이 따려 있어 편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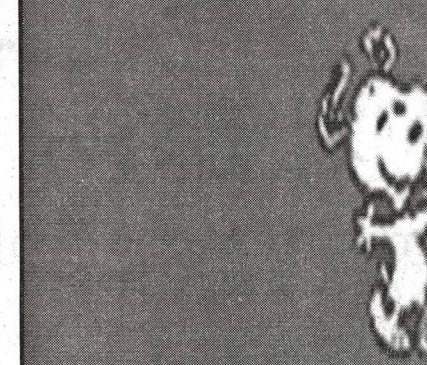
◀ 1.5 리터들이 페트 병을 음식 커버로 활용

페트 병의 바닥 부분을 잘라 이용하면 음식에 먼지가 끼지 않게 하는 식품 커버를 만들 수 있다. 컵 케이크나 쿠키 덮개에 안성맞춤이다. 1.5 리터들이 페트 병을 바닥에서 5 cm 정도 높이로 자르면 된다. 머리를 묶는 캔디 모양의 고무줄을 본드로 이용하여 가운데에 붙이면 손잡이가 된다.



청담대리점 대표 이원숙
서울 보증보험 강남지점(강남역2번출구) 02) 3420-2020 fax 3420-2021
010-7470-1992 cda0809@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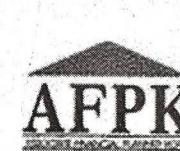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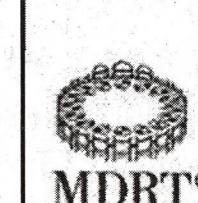
MetLife®



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

이만구

010 - 9921 - 9990
02) 739-2900
tot20009@hanmail.net
www.metlife.co.kr



MAGIC 지점 FSR / MDRT / AFPK

서울대은퇴설계전문가과정수료

우수인증설계사 / 부동산학석사

간접투자증권취득권유인

■ 기고 / 새해불공 동참기

이정화

<총지사>



총지종은 지금까지 나에게 생활이었고, 하나의 습관, '왜'라는 질문이 필요하지 않은 내 삶의 일부분이었다. 내가 어슴푸레 기억하기 시작하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나는 부산 정각사에서 불공을 하시던 엄마를 따라 절을 드나들었다. 불공을 하시는 엄마를 따라 '옴마니반메훔'을 따라 하기도 하고, 뭘 물어도 대답하지 않고, 그저 손짓으로만 의사 표현을 하는 엄마가 답답하게 느껴질 때면 (당시, 한글도 깨치기 전이니 '필답'은 생각도 할 수 없었다) 나처럼 엄마나 할머니를 따라와 무료해 하던 또래 아이들과 함께 절 마당을 뛰어 다니며 놀았다. 그런 일들이 가끔 꿈인 것처럼 스칠 만큼 그렇게 일찍이 내 삶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런 내가 스스로 새해 불공을 하게 된 건, 언제부터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래도 꽤 오래 전부터인 것 같다. 새해 불공을 할 때면, 해가 밝을 때, 바닥에 등을 대고 눕지 말라는 엄마의 엄명이 있었기에, 졸음이 쏟아질 때, 차마 눕지는 못하고 나를 잠자리를 굴려 벽에 이불을 쌓아 그 이불에 기대어 앉아 졸았던 기억이 지금도 가끔 떠올라 혼자 웃음 짓곤 하니 말이다.

하지만, 솔직히, 지금까지 내 스스로,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해야겠

수 있을 것 같았던 취지도 여의치 않아 해를 넘기게 되었을 때, 내 마음의 번뇌는 국에 달해 있었다.

하지만, 다행히도 엄마, 언니와의 속 깊은 대화와 위로로 그러한 마음을 겨우 다잡은 후, 시작된 2009년 새해 불공.

불공 기간 중에 들었던 설법과 보살님들의 대화들, 그리고 읽었던 책은 순간순간 내가 흙치 놀랄 만큼 내가 의심하고, 궁금해 했던 의문에 대한 답들을 제시했다.

새해의 시작을 알리고, 마음을 다잡는 불공인 만큼 새해 불공이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새해 불공의 결과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말고, 매달, 매일 열심히 불공하고 생활에 충실한다면 그것으로 새해 불공의 부족함을 조금씩 채워갈 수 있다는 말씀.

불공만 열심히 한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 변하고, 생활의 변화 또한 따라주어야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인생이 변한다는 진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뭘 수 있다는 것, 할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부처님의 뜻에 따라 열심히 정진하여야 한다는 책의 한 구절.

이처럼 정진하는 이들은 외연적인 삶은 다른 범인(凡人)들과 별 차이가 없을지 모르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이달의 사찰음식

오색연근밥

영혼을 천도하는 음식

오색연근밥의 오색에는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 첫째, 청색은 마음을 모아 부처님의 법을 구하고자 하는 정근(精勤)을

둘째, 황색은 찬란한 부처님의 몸의 빛과 같이 변하지 않는 굳은 마음을

셋째, 적색은 항상 쉬지 않고 수행에 힘쓰는 정진(精進)을 넷째, 백색은 깨끗한 마음으로 온갖 번뇌를 맑히는 청정(清靜)을

다섯째, 주황색은 수치스러움과 그릇된 길로의 편을 잘 견디어 이기는 인욕(忍辱)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극락도사 아미타불.

■ 재료

연근 400g, 찹쌀(불린 것) 1컵, 당근 20g, 표고버섯 20g, 단호박 20g, 식초, 소금, 무즙장, 오색재료(치자즙, 백년초가루, 시금치즙, 당근즙, 불린 하얀 찹쌀)

■ 조리법

1. 연근은 겹질을 벗겨 반으로 썰어 식초물에 담가 살짝 익힌다.
2. 당근, 표고버섯, 겹질 벗긴 단호박을 곱게 다져서 소금으로 가볍게 길을 둔다.



3. 하루 전부터 물에 충분히 불린 찹쌀을 짚술에 살짝 찌어서 소금길을 하고, 오색 재료로 버무려 색색의 물을 들인다.
4. 꽃모양으로 다듬은 연근 다섯 토막을 준비하고, 가운데 구멍은 도구를 이용하여 좀 더 넓혀 준다.
5. 각각의 연근 가장자리에 색을 낸 다섯 가지 찹쌀을 꼭꼭 눌러 채운 후, 가운데 구멍은 2의 야채를 섞어 채운다.
6. 김 오른 찜통에 속을 채운 연근을 꽂 찌어서 끄집어 낸 후 먹기 좋은 두께로 썬다.
7. 시원한 무즙양념장과 함께 상에 낸다.

■ 메모

무즙장(조선간장+무즙 약간+식초 약간+생강 약간+고소 다진 것 약간)

“하나의 믿음 가진 가족 있어 큰 위로”



고창 최고의 복분자를 저렴하게 드립니다!

‘온 가족이 직접 재배부터 제조 생산하는 농가입니다.’

- 효능 · 효과 -

* 치매 증후 예방 및 치료

* 항산화 효과-산화질소 생성 억제로 노화예방
(비타민C보다 5.2배 이상 효과)

* 관절염 치료 예방과 오줌소태, 방광계통 치료
* 위장 질병 치료예방(위궤양, 십이지장)

* 장내 유해세균 억제

* 항암효과(미숙과에서 특효를 보임)
* 탈모방지, 발모촉진

* 부인병에 탁월한 효과 및 정력강화
- 서울대, 경희대, 전북대, 원광대 연구발표 -

* 가격: 복분자 엑기스 ₩40,000 복분자주 ₩25,000 * 2병 이상 주문시 택배비 무료.

☎ 주문전화: 063-564-4230 018-603-4230

만보사 아름다운 산악회 창단

“아름다운 만보사로 가꿔 가겠습니다”



유복근
(아름다운 산악회 총무)

자루하고 길다고 생각했던 무자년도 새까만 밤 5일이 지나면 광명이 넘치는 새해가 됩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건강하시고 행복한 웃음이 넘치는 생활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종령님, 통리원장님, 전국의 각 사원 스승님들, 그리고 신정회 회원 여러분들께도요.

노보살님들께 삼년고개와 관련된 덕담 한 구절 올려드립니다.

“할아버지, 삼년고개에 가셔서 몇 번 더 넘어주세요.”

“예끼 이놈!! 어른을 놀리려 드느냐?”

할아버지는 버럭 화를 내며 호통쳤어요.

그러자 꼬마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한 번 넘어지면 삼년이요, 두 번 넘어지면 육년, 세 번이면 구년을 살잖아요.”

그제야 할아버지는 입가에 미소를 띠며 말했어요.

“허허, 듣고 보니 정말 그렇구나.”

할아버지는 삼년고개로 가서 자꾸 자꾸 넘어지며 좋아했어요.

이 할아버지처럼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기를 응원해 드릴께요.

이렇게 지나가는 무자년을 보내면서 지난날들을 점검해보고 미흡한 것들은 보완하도록 애써 봅니다.

새해의 벽두에서 보내드리는 만보사 소식은 ‘아름다운 산악회’ 창단입니다. 존경스런 정사님께서 원대한 목표를 세우고 발원을 이루기 위하여 간절하고 지극한 행을 봄소 보여

주신 결과입니다.

저희 모두는 두 분 스승님을 모시면서 받은 가르침들을 정말 소중한 양식으로 차곡차곡 정리해 잘 보관해 놓고 꺼내 쓸 수 있도록 마음속 깊은 곳에 심어놓고 있습니다.

정사님께서는 산악회 창단을 발원하신 후 꼭 이루어고자 하는 각으로

듯하고 가슴벅찬 기쁜 마음이 또 마음을 움직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무자년을 보내며 화합하시는 의미로 송년회, 웃돌이를 하기로 했습니다. 모두가 한마음이었습니다. 남편들을 다 모시고 나와 같이 웃돌이 한마당을 벌여 화합의 잔치를 벌이게 된 거죠. 정사님 또 기만히 계시지 않고



▲대전 만보사 아름다운 산악회 창립 모임

“불철주야 애쓰신 스승님께 감사”

오랜 시간 불공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해내신 거지요. 정사님과 함께 저희 신정회 회원들도 한 마음으로 봉원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산악회라는 예쁜 이름을 가진 우리들의 모임이 만보사 서원당에 태어났습니다. 아름다운 산악회는 정기적인 봉사활동과 함께 전국 산천의 유서깊은 사찰을 순례하며 종보에 기쁜 소식을 올릴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산에 오르며 건강한 신신을 만들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활기차고 단단한 단체가 될 것이고, 교화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산악회가 태어나자 정사님은 회원 모두에게 빨간색 등산조끼를 사주셨습니다. 빨간색 조끼를 똑같이 입고 뿐내며 갔었던 산악회는 너무나 뿐

웃돌이 상품을 사주셨습니다. 정사님께 정말 죄송한 마음, 감사한 마음, 염지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꼭 웃음이 넘치는 행복한 일만 있으세요. 꼭 소원을 이루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종조탄신 100주년 기념 종조법설집 명상용 CD, 테잎 보급



불교 총지종은 종조탄신 100주년을 기념해 종조법설집 명상용 CD와 테잎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출시된 종조법설집 명상용 CD와 테잎은 편안한 배경음악에 전문성우의 음성을 더빙해 누구나 듣기 쉽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소 딱딱할 수 있는 책으로 된 종조법설을 귀로 들을 수 있게 한 것은 원정 종조님의 사상과 유훈을 이땅에 다시 살아나게 한다는 큰 의미가 있는 불사 일 것입니다.

종조법설집 명상용 CD와 테잎구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불교 총지종 통리원으로 하시면 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76-2 / 전화 02)552-1080~3 / 팩스 02)552~1082

세상사는 이야기

새해를 맞는 기분은 설레거나 좋기 만 한 것은 아니다. 또 한 해가 가고 새로운 한 해가 오고 속절없이 나이만한 살 더 보탠다고 생각하니 괜히 마음이 무거워 진다. 저만치 도망가는 세월을 무슨 힘으로 막을 것인가? 이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맞이한 새해가 벌써 여려 날이 지나갔다.

올해는 새해 초부터 가슴 아픈 소식이 들려 왔다. 나와 아주 가깝게 지내던 이가 아직도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에 너무 놀라서 한참 동안 명하게 앉아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그렇게 단아하고 고우시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린다. 수술을 잘 받고 여전히 고운 모습으로 우리를 곁에서 밝게 웃으시던 모습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다시 병원에 다닌다고 했다. 치

“후회없는 한 해 되길”

료 잘 받고 꼭 다시 나와서 우리와 함께 봄사도 열심히 하기로 약속했는데……

새해 첫날 그는 이 세상과 이별을 했다고 한다.

근래에 우리들이 병문안을 가려고 했는데 사양을 해서 가보지 못한 것이 후회 된다.

자신의 고운 모습만 우리들의 기억 속에 남겨 두고 싶었으리라.

새해 첫날부터 무거워진 마음이 계속 나를 짓누르고 있는데 며칠 후 또 다시 우리 모임의 한 회원이 세상을 하직했다고 한다. 그는 훤칠한 키에 잘 생긴 외모에 노래도 아주 잘 불러 오랫동안 우리들과 합창단 활동도 같이 했다. 모든 면에서 아주 뛰어난 재주로 타인에게 베풀기도 많이 하고 배려도 많이 하며 살았던, 아주 인생을 잘 살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이런 그가 불행하게도 젊은 나이에 저 매가 와서 고생을 했다.

그때부터 늘 우리들이 모이는 날이면 예쁘게 화장해 주고, 고운 옷 입혀서 남편이 꼭 데리고 왔다. 우리들의 모임이 끝날 때까지 말없이 기다려 주었다. 여행을 갈 때면 남편은 여행지까지 따라와서 부인을 극진히 보살폈다.

조금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다. 난 안 된다고 자책할 필요도 없다. 한발 한발 차분히 걸어가면 언젠가는 원하는 곳에 도착하지 않을까? 아니면 가까이라도 가지 않겠까?

기사제보 총지종보에서는 전국 각사원의 소식과 행사, 기타 미담과 관련한 제보를 받습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제보전화 : 02)552-1080~2

불교 총지종

■ 진언행자를 찾아서 ■ 부산 성화사 오순자 보살

“관세음 보살의 참마음, 옴마니반메훔에 의지했죠”

끼 너때가 되면 식구들 밥지는 일 만해도 보통 일이 아니었다고 한다. 한 달이면 쌀이 한 가마. 큰 가마 속 모양새라 해서 불여겼다는 부산(釜山)이라는 지명이 떠올려졌다.

도 했다. 그런 차원에서는 불교를 열만나 잘 알고, 많이 알고는 이미 문제가 안되었다.

9남매 장손집 며느리

성화사 오순자(65, 법명: 정도심正道心) 보살. 보살은 9남매 중 장손의 아내로, 며느리로, 그리고 어린 시동생들과 자식들을 장성할 때까지 보살펴온 자애로운 큰 어머니로 살았다.

관세음보살의 화현 중에 송자관음(送子觀音)이란 분이 있다. 보통은 아이들을 안고 있거나 감로수로 아이의 기갈을 달래주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정도심 보살이 수많은 아이들을 보살피고 은덕을 베풀어 준다는 그 송자관음은 아닐까.

“불교는 의지(依仗)하는 거죠”

그랬다. 그는 무엇이든 관세음보살의 참마음 ‘옴마니반메훔’에 의지했다. 그것은 간절한 신앙심의 발로이기



◇ 사진 위: 회갑기념, 설악산에서

어르신을 부모님처럼

바라밀 재가장기요양기관 (가정방문 요양서비스)

어르신에게는 평안한 노후를!
가족에게는 효도의 기쁨을!

바라밀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어르신과 가족 모두가 행복하도록 돋겠습니다.

서비스 대상: 치매, 중풍, 뇌졸중, 거동불편 환자



주소: 강남구 역삼2동 776-2

문의: 02)3452-7485 (016-651-8053)

영문 모르게 시름시름 앓았다. 금자옥엽(金枝玉葉) 같은 딸아이를 끓을까봐 보살은 전전긍긍했다. 이름난 병원과 갖가지 방책을 써봤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그러다가 친정 여동생이 다니던 부산 동래 정각사를 찾게 되었다. 당시 정각사 정각원 스승님은 “부처님이 좋은 음식을 차려줄 수는 있지만 먹고 안먹고는 본인이 할 나름이다. 진수성찬이 있어도 떠먹지 않으면 무소용이다. 내 손으로 내 입에 떠넣어야 내 배가 부른 이치처럼 꾀나는 자기수행이 있어야 한다”고 짧지만 명확하게 일갈했다.

그 며칠 후 보살은 집과 가까운 성화사를 다니기 시작했다. 일년을 하루 같이 절을 찾아 일구워서 만발의 쾨차를 기원했다. 병세는 차츰 호전되었다. 딸은 그렇게 심신의 건강을 되찾아 갔고 어머니만은 신심 있는 교도가 되었다. 그리고 그 만발은 지금 마산 운천사에서 미음과 품이 아픈 사람들을 보살피는 스승의 길을 걷고 있다.

사위는 오랜동안 종단의 중책을 맡



13년간 총무, 우담바라회 이끌며 봉사와 전법 송자관음(送子觀音) 같은 자애로운 큰어머니

고 있는 인선 정사다. 사위도 자식이 랄 수 있는데 자식 둘을 수행 길로 보내 부모 마음이 그런 것일까. 정도심 보살이 눈물을 훔쳤다.

만발, 스승의 길로

“집안에 스승님이 나오려면 7대가 공덕을 지어야 한다죠. 경사스런 일인데 마음으로 늘 눈물이 납니다. 중생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면 고행난행 길도 마다해선 안되잖아요. 그 길을 헤쳐 나가려면 얼마나 힘이 들까요...”

정도심 보살은 지난 '82년부터 성화사 총무를 13년간을 했다.

재임중에는 봉사모임인 우담바라회를 이끌며 곳곳에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실천하기도 했다. 당시 지금은 사돈지간인 정정심(正定心) 스승을 그림자처럼 시봉하며 절과 교도들을 위해 헌신했다.

“지금 생각하면 집안과 절 살림을 어떻게 꾸렸는지 모르겠어요. 자질이나 여건이 되지 않았지만 부처님이 시킨 일이라 여기고 힘들어도 인욕하여 살았습니다.”

총무 소임을 살면서 남의 집에서는 밥도 못먹을 정도로 내성적이던 성격이 활달하고 시원하게 바뀌었다고 한다. 대중화합을 위해 우스갯소리도 마다하지 않는다고. 집안의 안주인 보살이 밝고 긍정적으로 변해가자 자연 가족들도 동화되어 갔다.

남편 이학렬(68) 각자는 보살의 든든한 도반이자 후원자가 되었다. 사업에 바쁜 연고로 절에 자주는 못오지만 매월 있는 단월회 모임만은 빠지지 않는다.

두 아들은 어려서부터 자성학교를 다녔고, 괴산 수련회 자원봉사를 자청해서 했다.

시어머님과 시누이, 동서도 보살을 따라 진언행자가 되었다. 시어머님은 분이시죠”

4년 전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성화사에서 정시불공을 지켰다.

이렇게 정도심 보살이 부처님 법을 만나 자신을 제도하고, 가족을 제도하고, 여러 교도들을 제접할 수 있었던 힘은 송하, 법공, 정정심, 지광 스승같은 훌륭한 분들의 인도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365일 부처님과

“불법 만나고 좋은 스승님 만나기가 자극히 어렵다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요즘엔 지광 주교님께서 강조하시는 집착을 버리고 부지런히 정진하라는 가르침을 새기고 있어요. 정사님은 부임 이후 만나라, 득락전 미타삼존 봉안 같은 대작불사는 물론 쉼 없이 온 도량을 가꾸면서 행동으로 보여 주시는 분이시죠”

**진언행자
가족을 찾습니다**

총지종 진언행자로 모범적인 수행을 하고 있는 진언행자 가족을 총지종보사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02)552-1080

바라밀 재가장기요양센터 가정방문 요양서비스 실시

총지종 바라밀 재가장기요양센터가 개원했습니다.

바라밀 재가장기요양센터 개원은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따른 것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가가 몸이 불편한 노인에게 요양서비스를 사회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로 노인은 소액의 본인부담금(총비용의 15~20%)으로 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나머지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보장제도입니다.

바라밀 재가장기요양센터(가정방문 요양서비스)는 어르신과 가족 모두가 행복하도록 돋겠습니다.

♠ 서비스 대상: 치매, 중풍, 뇌졸중, 거동불편 환자

- 문의: 02)3452-7485(016-651-8053)
- 주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불교총지종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 02)552-1080~3 전송 02)552-1082 //www.chongji.or.kr